



컨퍼런스가 12월 27일부터 2박 3일 동안 열린다. 사진은 11일 기자회견 후 준비위원회 관계자들 모습.

‘2018 하이어콜링’ 유스그룹에 포커스... 영적 추수 준비한다

미자립교회 및 중소형교회 학생들 적극 참석 격려해

미주 한인 유스그룹과 대학생들을 예수의 군사로 키우기 위한 Higher calling 컨퍼런스가 12월 27일(목)부터 29일(토)까지 2박 3일 동안 샌디에고 ‘타운 & 컨트리 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특히 27일부터 진행되는 집회는 유스그룹을 위주로 진행되며, 대학생 그룹은 따로 준비될 예정이다.

미주 성서화 운동 본부가 (송정명 목사)주최하고, SOON Movement(KCCC)가 주관하는 이번 하이어콜링 집회는 “Un-ashamed”(로마서1:16)라는 주제로 열리고, 소명을 잃어버린 청년들이 영적 축제를 통해 삶의 변화를 체험하고 비전을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1일 주최 측은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준비위원장 박종술 목사(SOON Movement)는 “지난해까지는 유스그룹과 대학생 그룹이 연합해 집회를 진행해왔는데, 올해는 따로 함으로써 더 시너지 효과를 노리고 있다”며 “청년으로부터 소외된 그룹이 유스들이다. 학생들이 이번 집회를 통해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는 시간이 되길 기도하고 있다. 특히 미자립교회 및 중소형교회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행위원장 이성우牧사는 “그동안 중고등부 대규모 집회가 없었던 것은 유스그룹 특성상 재정 문제와 부모 허락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었다”며 “이를 위해 미주성서화운동 본부가 적극적으로 도우며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집회에서 강사로 참여하는 준비위원 데이빗 박은 “지난 비전 컨퍼런스에서 많은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다”며 “요즘 유스그룹을 보면 스마트폰 및 각종 미디어에 둘러싸여 사람들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하는지를 잘 모르는 것이 문제다. 집회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집회 주요 강사로는 유진 조(Senior Pastor of Quest Church), 데이빗 박(Traveling Speaker), 영리(SOON Movement Field Ministry Director), 케빈 영(Cru High School ministry)이 참여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아침, 저녁 대집회, 시드오브워십(Seed of Worship)공연, 선택특강, 전도강의 및 훈련, CCM & CCD 패스티벌, HC 올림픽, 교회별 팀 빌딩 타임, Praise & Worship by Undig Tour 등이 준비되고 있다.

남가주뿐만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애틀란타, 뉴욕, 하와이 등 4개 도시에서 열리는 집회 등록비(숙박비 포함)는 200불이며, 각 교회마다 사전 등록이 가능하다. 주최측은 미자립교회들 학생들을 위해 등록비 조정 방안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문의) 213-210-8248, 213-389-5222. www.highercallingyouth.org.

토마스 맹 기자



기쁜우리교회에서 가을 말씀 잔치를 열었다. 강사로 초청된 임현수 목사.

예수님과 사도들을 본받자 할 때 무엇을 본받는가?

기쁜우리교회 임현수 목사 초청 말씀잔치 열어

지난 7일(금)부터 9일(주일)까지 글렌데일에 위치한 기쁜우리교회(JCCC - Joyful Christian Community Church)에서는 하박국 3장 2절 말씀 ‘주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를 주제로 가을 말씀 잔치를 열었다. 임현수 목사(캐나다 큰빛교회 원로목사)가 ‘고난이 주는 축복’, ‘하나님을 아는 축복’, ‘복음전도의 축복’, ‘형제 화해의 축복’,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제목으로 5차례에 걸쳐 말씀을 전했다.

토요일 저녁 집회에서 임 목사는 사도행전 1장 6-8절 말씀을 바탕으로 전도의 중요성을 전했다.

“교회에서 여러 사역을 해도 잃어버린 양에서 관심이 없다면 누가 복음 15장에 나오는 만아들과 같다. 한인타운에서 봉어빵 아저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더니 울면서 주님을 영접했다. 한번은 우동집에 들어가 우동집 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부인이 교회를 너무 다니고 싶는데 용기가 안 난다고 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미 준비해 놓으신 분들이 있다.” 이십 대 중반 때, 교수 성경 모임을 이끌게 된 사건을 전하기도 했다.

“새벽 네 시 운동을 하러 가는 길에, 한 아저씨께 길을 여쭙었더니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 주셨다. 그분께 교회를 다니냐고 여쭙었는데, 철저한 반기독교인이었고, 인하대 부총장이셨다. 그때 주님이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다. 자신의 말에 맞장구를 쳐주니 나를 집에 초대하셨고 집에서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알고 보니, 그 부인이 정동교회 집사였고 성경을 가르쳐줄 사람을 보내달라고 3일 금식기도를 하셨다고 하셨다. 나도 1월에 성경공부 그룹을 달라고 기도했다. 그래서 그 주 토요일부터 교수 여덟 가정이 모여 성경공부를 시작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었는데 모두 영접기도를 드리고 주님을 영접했고 다음주까지 전도를 해오라는 숙제를 내셨다.”

그는 이 모임이 커져 국민대에 [2면에 이어서 계속]

Spectrum BUSINESS | **TIME WARNER CABLE**

교회, 사업체에서 한국과 같은 초고속 인터넷 속도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스펙트럼에서 획기적인 속도와 가격으로 고객 여러분을 모십니다.

Sale
 인터넷 100Mb + 미국, 캐나다 무제한 전화
\$74.99 a month
 NO Contract!
 인터넷 200Mb/300Mb 한달도 가능합니다.
 타 회사 위약금 발생시 최대 \$500까지 보상합니다.

Sang Park | T.(562)916-5191
 (한인 매니저) | Sang.park@charter.com

그린카피어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할인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FATHER'S TABLE CHURCH
 내 집은 만민이 금식 기도하는 집입니다

- 주일에배 : 오전 6:00 / 11:00
- 새벽예배 : 월~토 오전 5:30
- 수요일예배 : 오후 5:30
- 금요일예배 : 오후 5:30
- 찬양 & 부흥예배 : 월/화/목/토 오후 5:30

3210 W. Olympic Blvd., CA, LA 90006
 TEL: (213)364-7289, (213)605-1983

NEXT 1차 인생 뒤집기 말씀 축제(1)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함께하는 **요셉의 꿈**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함께하는 **요셉의 꿈** 집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녀와 함께 오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황교안 전도사
 프로필
 2015-17 제 44대 대한민국 국무총리
 2016-17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
 목동 성일교회 전도사

NEXT 사랑의교회
 NEXT Sa-Rang Church

주최
 NEXT 사랑의 교회

날짜
 2018년 9월 22일(토) 저녁 7시
 2018년 9월 23일(일) 아침 11시

장소
 NEXT 사랑의 교회 사랑 채플
 11 Musick, Irvine, CA 92618
 T: 949-829-0010

한인기독교상담소 칼럼

가정폭력 : 피해자를 위한 지원방법

요즘 들어 가정폭력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서 가정폭력을 경험한 분들이 있다면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가? "내가 아마 맞을 짓을 했을 거야", "난 착실한 기독교인이 아니잖아, 살아오면서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거라 생각해", "성경에서 아내를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하잖아, 그렇다면 그 사람의 폭력에도 순종해야 된다는 말일까?"



송 조 이 상담원
한인기독교상담소

CalWORKs(California Work Opportunity and Responsibility to Kids)라는 정부 보조 프로그램이 있다. 이것은 참여자가 먼저 가정폭력 피해자인지 검토한 후, 피해자 가정이면 현금 보조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상담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며 비밀보장이 된다. 또한 하우징, 음식, 유틸리티, 의복 혹은 의료에 대한 긴급한 도움도 지원한다.

잘못된 성경 이해와 사회적 통념 가운데 언어와 문화가 다른 미국 이민 사회 속에서, 교회 안에서도 폭력으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특히 한인들의 체면 문화와 수치심, 두려움 때문에 폭력을 당하는 상황에서 말도 못 하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서 가정폭력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는가? 또한 가정폭력을 경험하는 피해자를 도와준 적이 있는가? 이제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거기에 담대하게 걸어 나와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이다.

다른 지원기관으로 가정폭력 쉼터가 있다. 위험에 처한 피해자를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피해자를 안전하며 비밀이 보장되는 장소로 피신시키고, 가해자의 폭력에서 벗어나 쉴 수 있는 공간, 나아가서는 자립을 위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단체와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의 가정폭력 쉼터는 LA 카운티에만 60여 개가 있다. 위급한 상황에 제공하는 단기 쉼터(Emergency Shelter)는 약 1-3달까지 머무를 수 있으며, 피해자의 자립을 돕는 장기 쉼터(Transitional Shelter)는 약 1-2년 기거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곳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거나 혹은 작은 돈을 내며 머물다가 나갈 때 그 돈을 목돈으로 받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카운티 안에 저소득/시민

아파트(low-income Housing)에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할당된 unit이 있다.

또한 부녀자 폭력방지법(Violence Against Women Act(VAWA))인 '바와'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진 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부터 합법적 신분을 아직 취득하지 못한 외국인 배우자와 그 자녀 또는 부모를 보호하는 법으로서 별거나 이혼 없이 VAWA 법을 통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이 수속도 비밀이며 가해자에게 연락되지 않는다.

둘째로, 상담을 통한 지원이다. 상담지원으로는 안전계획을 세우는 일과 홀로서기를 돕는다. 응급 피신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안전 계획을 세워두는 일과 피신 후의 위험을 이해하여 안전대책을 세우도록 돕는다. 또한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경우 홀로서기를 위하여 돕는다. 물론 전문 상담자와의 심리적 상처 치료를 위한 상담은 계속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피해자는 전문기관을 찾는 용기와 담대함이 있어야 하며, 주위의 사람들도 그들을 위한 서포트 그룹으로 도와주어야 한다.

폭력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시편 11:5, "여호와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개역개정).

히브리서 12:14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뵈지 못할 것입니다"(새번역) 문) 한인기독교상담소 (kaccla.net) 전화) 213-738-6930 (LA) 657-529-1133 (OC)

남가주목사회, 연합사역 위해 미주 횡단 나서

반기독교적 세태 막기 위해 첫발 내딛어



남가주목사회가 반성경적 가치 확산에 대항하기 위해 미주 횡단에 나섰다.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샘 신 목사)가 반성경적 가치관 확산에 대항하기 위해 미주 한인 목사회간 연합을 도모하고자 미주 횡단에 나섰다. 9일 오후 남가주목사회 임원들은 성경적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 미주 횡단을 시작하고 첫발을 내딛었다. 목사회는 엘파소, 달라스, 노스캐롤라이나, 메릴랜드, 필라델피아, 뉴저지, 뉴욕, 시애틀 순으로 방문해 지역 목사회 및 각 교회와 교류를 나눌 계획이다.

목사회는 관계자는 "전세계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미국에서 한인 목회자들의 연합으로 반기독교적이고 오히려 기독교 핍박에 가까운 법령 제정들을 대항하고자 미주 전역의 목회자들과의 연합을 기도하고 있다"며 "아울러 미주 각 지역별 강단 교류와 연합사업 개화로 믿음의 함성이 곳곳에 울려 퍼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남가주목사회는 이번 순회에서 각 지역 목사회와 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NEXT 인생 뒤집기 말씀 축제 황교안 전 국무총리 초청 집회

열반인에 있는 넥스트사랑의교회(왕상운 담임)는 9월 22일(토) 오후 7시와 23일(주일) 오전 11시에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초청해 NEXT 1차 인생 뒤집기 말씀 축제를 개최한다. '요셉의 꿈'이라는 주제 아래 열리는 이 축제에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아 이집트에서 총리가 되었듯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꿈을 받고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는지 간증할 예정이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지난 8월 《황교안의 답-황교안, 청년들을 만나다》라는 제목의 수필집을 출간하기도 했다. 남가주 사랑의교회는 "자녀들과 함께 오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발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1면으로부터 계속]

교수성경공부모임이 세워지고 43명의 교수들이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을 전도하면 파급력이 크다. 한 평범한 선교단체 간사가 헬리웃 감독을 전도해 기독교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 되게 해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그는 예수님의 모든 삶의 초점이 전도에 있었다고 말했다. "찰스 M. 웰돈의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유감스러운 점

은 전도하는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는 전도하는 예수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목적을 분명히 하셨다. 갈릴리 해변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버림받은 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 사마리아로 지나가시고, 여리고로 가셔서 삭개오를 구원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며 전도하셨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늘 전도하시는 분이셨다. 예

수님을, 사도들을 본받자 할 때 무엇을 본받는가? 그들은 이력서를 쓴다면 아무것도 쓸 게 없는 자들이었다. 그들의 전도를 본받아야 한다. 영혼을 구원하지 않으면 어찌 제자라고 할 수 있나?" 그는 자신이 캐나다에 가게 된 계기를 밝히며 선교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길 당부했다. "캐나다에 가게 된 이유는 캐나다의 피플스처치(Peoples Church) 오스왈드 스미스(Oswald J. Smith)

목사님의 책 《구령의 열정》(Passion for Souls)을 읽고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다. 85년도 그 교회를 방문했는데, 교인이 4천명이었고 860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다." 그는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사는 사회가 부흥된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즈는 무디 목사를 천국 세일즈맨이며 철자법도 틀리고 신학적 교육도 받지 않았으며 비판했다. 하지만 뉴욕타임즈는 집회 이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약덕한

자는 유순해지고 불결한 자는 순결해지고 의인들은 밝은 소망을 갖게 되었고 청소년은 고매해지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위로가 주어졌고 감옥은 텅텅 비고 당구장이 사라지고 술집이 없어지고 도둑질한 사람은 물건을 다시 돌려주었다." 이날 모임은 임현수 목사의 축도로 마무리되었다. 기쁜우리교회는 이 집회에 이어 9월 30일 예수 초청잔치를 열어 9월을 은혜로 마무리할 계획이 주디 한 기자

오바마케어 승인 프로그램
Christian Healthcare Ministries
크리스천 헬스케어
* 연중 아무때나 가입이 가능.
* 골드 프로그램은 본인부담금(\$500)을 지불하지 않음
www.chman.org 714.738.1234
ACCREDITED CHARITY bbb.org

www.saseducation.weebly.com
실무 10년의 노하우
SAS 인가컨설팅, Inc
대표 Paul Kim, Ph. D
Tel : (213)531-7215, (909)993-3028
2975 Wilshire Blvd, Suite B01, Los Angeles, CA 90010
• 직업전문대학인가(ACCSC)
• 신학교 인가(TRACS, ATS)
• BPPE 신규 및 재승인
• 어학원/온라인 프로그램
summitus37@gmail.com

미국 정착의 지름길
이민법 전문 변호사
임상우를 만나십시오
오직 이민법만을 취급합니다
• 투자비자 및 이민업무
• 취업비자 및 이민업무
• 지상사주재원 비자 및 이민업무
• 종교비자 및 이민업무
• 학생비자
• 가족초청 이민업무
• 체류기간 연장
• 시민권 취득
• 추방 재판
• 기타 전반 이민업무
www.davidlimlaw.com
임상우 이민전문로펌 213.251.5554
Law Offices of David S. Lim | 3435 Wilshire Blvd., Suite 2550, Los Angeles, CA 90010 / Fax 213.251.8451



9월 12일 살롬장애인선교회 센터에서 제40차 사랑의 휠체어 보내기 발송식이 거행됐다.

살롬장애인선교회, 제40차 사랑의휠체어 발송식 거행

휠체어 1만 여대와 의료기구로 전 세계 장애인 5만 5천명 도와

지난 1999년 9월부터 전세계 빈국에 사랑의 휠체어와 각종 의료보조기구를 전달해 온 살롬장애인선교회가 올해 제40차 사랑의 휠체어 보내기 사업을 벌여 우즈베키스탄과 우간다에 사랑을 나눴다. 이 선교회는 지난 19년간 휠체어 12,138대와 기타 의료보조기구 51,746점 등 총 63,884점을 40차에 걸쳐 13개국에 선적하여 5만 5

천여 명 이상의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대표 박모세 목사는 “이런 놀라운 결과는 첫째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둘째로는 이 귀한 사업에 동참해 주신 한인사회 내 교회와 단체, 성도들의 헌신 덕분”이라며, “후원금 200불이면 휠체어 1대와 크리치와 같은 기타 의료보조기구 2세트를 구입해 총 3명의

장애인들을 도와줄 수 있다”고 전했다. 올해 살롬장애인선교회는 시가 약 10만불에 해당하는 휠체어 435대, 알루미늄 목발 416개, 지팡이 360개 등 3,022점을 선적한다. 9월 12일 살롬장애인선교회 센터에서 휠체어 발송식이 거행됐으며 오는 20일 통비치항을 통해 물품들이 출항하게 된다.

“아름다운 예배-동행” 찬양집회 성황리 열려

지난 8일 “아름다운 예배-동행” 첫번째 집회가 종료됐다. 원하트미니스트리 주관으로 열린 집회는 부에나파에 있는 호산나평화교회 예배실에서 자리를 가득 메운 가운데 열렸다. 원하트동행투어는 찬양집회를 한번 제대로 열수 없는 남가주 지역의 작은교회와 개척교회를 찾아가 찬양예배를 드리는 사역이다. 원하트미니스트리 관계자는 “호산나평화교회에서 교인과 청년 50여명, 그리고 외부에서 집회에 참

석하신 분들 등 100여명이 의자가 없어 땅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정도로 가득 찬 예배를 드렸다”고 밝혔다. 주관 측 찬양팀과 찬양사역자 김브라이언 형제의 인도로 진행된 이번 집회는 호산나평화교회에 새로운 활력과 힘을 불어 넣어주는 집회가 되었다고 원하트는 밝혔다. 주관 측은 “특별히 노인 성도부터 중고등학생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불편함 없이 은혜로운 찬양의 예배 시간이 되었

다”고 밝혔다. 원하트동행투어는 10월 13일, 11월 3일, 12월 15일 등 세번의 집회를 더 준비하고 있다. 주관 측은 “아직 집회장소가 정해지지 않았으며, 집회를 원하는 교회는 신청이 가능하다”며 “아무런 사려나 식사 등 전혀 필요가 없으며, 모든 것을 원하트미니스트리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하는 집회이다. 교회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213-347-5080

LA총영사관, 시민권 미취득 입양인 지원 세미나 연다

LA총영사관은 오는 15일 시민권 미취득 입양인 지원 세미나 및

한인 입양인들이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는 ‘함께 찾는 Korea: Con-

nect-A-Kid to Korea’ 행사를 LA한국문화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 행사는 한인 입양인에게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인 입양인 단체인 Connect-A-Kid(회장 김한선)과 공동으로 개최한다. 세미나에 이어 참석자를 대상으로 관저 만찬 행사가 열린다. 이번 ‘시민권 미취득 입양인 지원’ 세미나에는 미 전역의 한인 입양인 약 7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엇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 연방 하세요? 10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의 고민 해결을 한 발에 달려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돌리십시오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6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현대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남가주 한인교회음악협회 관계자들.

한인교회음악협회,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내다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는 7월 22일에 제37회 찬양 합창제를 개최해 모여진 헌금 전액을 가정폭력 피해 여성과 자녀들을 돕는 푸른초장의 집(Home on the Green pasture)과 시온성교회(담임 송영종 목사), USC찬양선교회(Power of Praise Church, 담임 신승호 목사)에 전달했다.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라는 부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선한목자장로교회, 감사한인교회, 남

가주사랑의교회, 생수의강선교회, 하나로커뮤니티교회, 베데스다대학합창단, 오펜지미션과이어 등 8개 찬양대가 참가해 이웃돕기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이 협회는 “푸른초장의 집은 기독교 정신으로 운영되는 여성보호 단체로 정부의 도움을 받지 못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이곳에 기부하기로 했다. 앞으로 계속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단체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션크리스천대학교(MCU) 학위수여식 및 목사안수식 열려



학위수여식 이후 단체 사진

미션크리스천대학교 및 대학원(총장 윤요한 박사)은 지난 27일 오후 6시 30분에 대학교 강당에서 졸업 및 학위수여식과 맹혼 목사 안수 임직예배를 거행했다. 학장 정운 박사의 사죄로 시작된 이날 예식은 조영제 박사, 김영민 박사, 류창식 박사, 문대룡 박사, 이천선 박사, 엄상현 박사 등 본 대학교 교수진과 조창훈 목사(실로암교회 담임), 김정욱 목사(MCU동문회장) 등이 주요 순서를 담당했다. MCU 남성찬양단의 찬양에 이어, 총장 윤요한 박사는 ‘가장 고상한 소원(빌1:20-21)’이란 제하의 설교에

서, 사도 바울의 세 가지 고상한 소원- 부끄러움 없이 사는 것, 담대하게 사는 것,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죽는 것-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설 것을 역설했다. 이날 임직 받은 맹혼 목사에게는 M.Div. 학위와 총장상패가 수여되었고, 대학원 졸업생 다니엘 리에게는 Graduate Diploma(기독교 교육학 전공)와 학장상패가 수여되었다. 이날 예식은 MCU합창단의 찬양과 맹혼 목사의 축도로 폐회되었으며, 행사를 위한 모든 만찬과 설비는 다우니 실로암교회에서 협찬함으로써 자리를 빛냈다.

CARAVAN CANOPY
Division of Faith

- ✓ 현수막 | 천막
- ✓ 접이식 배너 | 디스플레이
- ✓ 프로모션 상품
- ✓ 디자인서비스

VINYL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2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50 Plus tax if applicable

MESH/POLY FABRIC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3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70 Plus tax if applicable

교회 이동 디스플레이 및 디자인 전문

카라반캐노피는 대형프린팅 분야에서 18년의 전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안 수정, 로고 제작, 한글 캘리그래피 디자인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며 고성능 프린트 작업으로 최고의 만족도를 약속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모든 디스플레이 제작, 맞춤형 서비스

플래그

X 배너 거치대

벽걸이 포스터

롤업배너

현수막

<선교 부흥을 회복하라 - 80>

선교지를 옮기시는 분도 하나님 이시다

필자가 목회를 하면서 처음 찾은 선교지는 멕시코다. 물론 지금까지도 후원하고 함께 동역하는 선교사가 있다. 메히칼리(Mexicali)에서 신학교와 교회개척 사역을 하시는 임원석 선교사이다. 그분은 20년 전 멕시코에 처음 건너와서 신학교사역을 시작했다. 메히칼리 허허벌판에 부지를 잡고 직접 첫 삽을 떠서 땅을 고르고 돌을 뽑고 거처할 막사를 짓고 재래식 화장실을 만들어 사역을 시작했다. 현지인 청년지도자들을 훌륭하게 양육하고 훈련하여 그들의 고향으로 파송하여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고 영혼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게 했다.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동토와 같은 그 땅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의 청년들이 이슬람 청년들과 연합해 예배 드리고, 함께 복음을 증거하고 더 나아가 한 나라 한 민족 안에서만 드러지는 예배가 아닌, 이사가가 예언한 대로 열방의 백성들이 이 나라 저 나라로 나아가 다민족의 예배가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할렐루야! 필자는 매년 그 현장을 목격한다. 캠퍼스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에 반응하는 청년들을 만나, 그들의 기숙사에 초대받아 밤새도록 예수님 이야기를 전하다가 마침내 그들의 입에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고백을 들었을 때의 감동과 기쁨은 정녕 경험하지 못한 분은 모를 것이다.

그분은 멕시코 남단의 치아파스(Chiapas)로 가서 신앙을 가진 현지인 청년들 중 인터뷰와 시험을 통해 신학교에 입학할 청년들을 뽑아 20인승 밴 차량에 태워 메히칼리에 데리고 와서 학부과정 4년, 신대원 과정 3년을 가르치며 목회 후보자들을 양육했다. 이 지면 몇 줄로 그의 눈물과 땀의 사역을 다 말할 수는 없으나 이제 그 사역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때가 되었다. 그의 꿈대로 신학교 출신의 제자들이 현지로 돌아가 멋진 목회자가 되어 훌륭하게 목회하고 있다.

이슬람권 선교는 더 큰 지경을 위해 사역의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할 시점에서 있다. 지금까지는 복음증거를 통한 교회 개척의 비전을 향해 왔다면 이제는 현지인 청년들을 훈련하고 양육해 교회를 이끌어 갈 차세대 지도자로 세워줘야 한다.

필자가 이슬람 선교에 관심을 갖고 사역을 시작한 해가 2007년 도인데 이제 십여 년이 됐다. 이슬람권은 이 시대 최전방 선교지이며 지난 천년간 기독교와 싸워 온 전쟁의 역사와 반목과 갈등을 겪었다. 뾰족까지 기독교에 대한 증오심으로 가득 찬 그들에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목숨을 건 영적싸움이며 더 나아가 그들을 열방의 전도자로 파송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은 불가능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그 불가능하게 보이는, 믿겨지지 않는 믿음의 역사가 지난 10년간에 일어났다.

필자는 멕시코를 포함한 남미의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날 것이라 믿는다. 그들이 열방을 향해 나갈 때가 오고 있다.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와 선교사역자들이 그 교량역할을 담당한다. 하나님은 우리 선교사들을 옮기시기도 한다. 동남아에서 멕시코로, 남미에서 이슬람으로, 아프리카에서도 열방을 향한 선교부흥이 일고 있다. 앞으로 십년은 더욱 급변하는 하나님의 선교(Misio dei)의 시대가 될 것이다. 이때 우리 교회들이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기도한다.

더이상 기독교인인 것이 밝혀지면 처형당하는 시대가 아니다.

● 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강태광 목사

행복한 노년을 위한 네덜란드 노인 공동체!

오래전 일입니다.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경제적 형편에 맞게 시골에서 노후를 보내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여러 이유로 평생을 홀로 지내신 목사님은 조용한 시골 생활을 동경하셨고 경제적 상황도 적합해서 한적한 시골에 깨끗하게 조성된 노인 요양시설에 입주하셨습니다. 홀로 여생을 보내기에는 요양시설이 안성맞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서울로 돌아와 원로 생활을 하셨습니다. 이유인즉 시골 요양원 생활이 너무 적적하고 외로워서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세계에서 노인들이 가장 행복한 나라 네덜란드에는 노인들을 위한 특별 공동체가 있습니다. 공감과 공유가 가능한 공동체를 마련하여 노인들을 행복하게 합니다. 네덜란드가 시행하는 여러 노인 복지 제도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노인 공동체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있는 노인들을 위한 특수한 생활공간을 조성하여 노인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노년 특수 마을들을 소개하며 그들이 추구하는 노인 행복을 살펴보겠습니다.

움을 주고받습니다. 건강과 재산을 소유한 노인들이 더불어 살면서 행복한 노년기를 보냅니다. 노인들이 공동생활을 함으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다양한 자산(資産)들을 공유하는 공동체입니다. 노인들을 위한 기숙사 같은 이 공간은 양로원과 노인 아파트의 장점들을 잘 조합한 선진 노인 공동체입니다.

첫째, 노인 마을입니다. 1984년 혼자 살기는 적적하고 양로원에 살기는 싫은 노인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거주자들은 개인 공간과 공동체 공간을 동시에 가지면서 프라이버시는 보장받고 중요한 공유 환경은 함께 나누고 또 공동체의 일원들이 서로 도

움을 주고받습니다. 건강과 재산을 소유한 노인들이 더불어 살면서 행복한 노년기를 보냅니다. 노인들이 공동생활을 함으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다양한 자산(資産)들을 공유하는 공동체입니다. 노인들을 위한 기숙사 같은 이 공간은 양로원과 노인 아파트의 장점들을 잘 조합한 선진 노인 공동체입니다.

둘째는 치매 마을입니다. 그들이 호그벡(Hogeweyk) 마을이라 부르는 치매 마을은 모든 시스템을 치매 노인 중심으로 운용합니다. 노인 치매 환자들의 일상을 보장하여 자유와 행복 그리고 삶의 재미를 느끼며 살도록 배려하면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지원 그룹의 돌봄을 받게 합니다. 치매 마을 호그벡에서 노인들의 모든 필요가 충족되게 하고 치매 노인들이 호그벡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보호합니다. 성벽 같은 건물에 출입구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 출입구는 세 겹의 문으로 통제되고 있습니다. 호그벡을 모델로 유럽 각국에서 치매 마을을 운영하고 있고 그 시스템을 배워 가고 있다고 합니다.

셋째는 치유 농장입니다. 농장에서 기초적인 노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게 함으로 건강과 행복을 누리게 하는 농장입니다. 이런 치유 농장은 7세기 경 아랍에서, 15세기경 스페인에서 이미 실행되었고 19세기 이후부터 치유 농업은 하나의 학문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아프거나 소외된 사람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맞는 사회와 역할을 부여함으로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치유 농장은 파킨슨병, 치매, 우울증 등등 각 질병에 맞는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농장 운영과 치료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치유 농장은 농촌 혁신과 사회자유의 모범 사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넷째는 요양 마을입니다. 노인들을 위한 간호, 데이케어, 재활치료, 홈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공동 생활 시설입니다. 각종 질환과 건강 상태 별 요양 공동체를 조성해 놓은 것입니다. 심리적 안정과 위로를 제공하고, 전문 의료진을 배치함으로써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네덜란드 사회는 노인들의 필요를 따라 노인들을 돌보는 시스템을 운용합니다. 일반적인 복지 시설이 아니라 노인들의 자발적(自發的)이고 자조적(自助的)인 참여를 기본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덜란드는 늙고 병든 노인들의 돌봄이나 관리에 머무르지 않고 그들의 행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행복 국가입니다.

중국인 목사, 편지로 '허난성 핍박' 고발 한국 순교자의 소리, 편지 공개

한 중국인 목사가 지난달 30일 중국 중부 허난성의 교회들이 겪는 핍박을 고발하는 내용의 편지를 썼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Voice of Martyrs Korea, VOM Korea)는 최근 "허난성 기독교인들은 극심한 탄압을 받고 있다"며 이 편지의 내용을 공개했다.

리고, 물건을 부수고 강탈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문화혁명'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전적으로 불법이며, 부당하고 비이성적이다"고 지적했다.

최근 이 지역 교회들을 방문한 선센핑 목사는 편지에서 "정부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기관을 동원했기 때문에 이곳 교회들은 모두 심각한 공격을 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성(省), 도시, 마을 단위에선 동원된 공안, 무장한 경찰부대, 고위 관리부터 하위 관리까지 모든 공권력이 교회를 협박하고, 기독교인을 구금하고, 예배당을 허물고, 교회 입구를 봉쇄했다"고 고발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을 때

다음은 선센핑 목사의 편지이다. 최근 저는 신양 시(市)와 난양 시의 통바이 현(縣), 탕허 현의 핍박받는 교회들을 방문했습니다. 정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기관을 동원했습니다. 성(省), 도시, 마을 단위에선 동원된 공안, 무장 경찰 부대, 고위 관리부터 하위 관리까지 모든 공권력이 교회를 협박하고, 기독교인을 구금하고, 예배당을 허물고, 교회 입구를 봉쇄했습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은 전적으로 법에 어긋난 이며 부당하고 비이성적입니다. 마음이 아프고 슬픔

니다. 저는 외칩니다. 바로 정부 당국자들이 대내외적인 전쟁을 원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대내적으로는 약하고 온순한 기독교인들과의 전쟁을 원하는 것인가? 이들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목적이 무엇일까요? 정부 모든 부서가 해야 할 중요한 업무를 제쳐두고 정치를 이용해 기독교인들을 적으로 만드는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기독교인들을 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 밖에 할 일이 없습니까? 그런 권리를 누가 주었던 말입니까? 도대체 어떤 결과를 원하는 걸까요? 원하는 목적을 이뤄가고 있습니까? 아, 정말 슬픔입니다. 나의 조국이며! 선센핑 목사.

2018년 8월 30일. 강혜진 기자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방지각, 김중업,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만규 이 사 장 : 임덕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미주 크리스찬 문인협회

문학 특강 안내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 **강사** : 강태광(목사, 시인, 시조인)
시집 : 온 세상에 그대 얼굴이 숨어 있다, 불청객, 그리움 한 아름 안고
수필집 : 당신의 행복을 여는 99가지 열쇠
한국일보 (샌프란시스코)외 다수 언론지에 고정 칼럼 기고
현)기독교일보 행복칼럼, 침례신문 문학칼럼
- **제목** : 박목월의 신앙시 산책
- 목월의 신앙시에 나타난 신앙세계
- **일시** : 2018년 9월 22일(토) 오전 10시
- **장소** : 로텍스 호텔(Rotex Hotel)
3411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강태광(목사, 시인, 시조인)

고문 : 김문희 선생
회장 : 정지윤 T.(213)249-0771
부회장 : 김상분, 허철
사무국장 : 조애영

미주 크리스찬 문인협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서 5:1-10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본문 에베소서 5:1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2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3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4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5 너희도 이것을 정녕히 알게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니 6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니 7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8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9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10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은 생명의 빛이시고 구원의 빛이시며 영원한 빛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하고 핍박과 환란 가운데 있더라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은총의 대상으로 불들어 써 주시게 되며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시골에서 그리 녀치지 못한 형편으로 농사로 생계를 이어가는 가정에 딸들과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딸 둘은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상 주는 일이 있을 때마다 상을 받아오고 교회에서 모범학생으로 주는 장학금까지 지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 둘 중에 큰 아들이 말썽입니다. 중학교도 낙제를 면할 정도로 공부를 싫어해서 가까스로 졸업을 했고 공부가 싫어서 고등학교도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장남이라고 집에서는 공부시켜 가문을 일으켜보려 기대를 가지고 뒷바라지를 했지만 공부가 죽기보다 싫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술과 노름에 빠져 부모 속을 썩였습니다.

그래도 작은 아들은 누나들을 따라서 열심히 교회에 다녔고 교회에서 배운 대로 더럽고 추한 곳엔 가지도 않았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큰 아들은 그렇게 자라서 술과 도박, 음란 방탕함으로 결국 형무소까지 가게 됩니다. 그는 양심이 화인 맞은 심령으로 이성을 잃고 인생의 꿈을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그것은 악령에 사로잡혀 사

는 인생이었습니다. 도박 빛에 쫓겨 다니다가 모진 목숨으로 죽는 것은 두려워서 도적질을 하게 되어 형무소까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무료하고 지겹게 감옥살이를 하던 중 그곳에서 누군가로부터 전도를 받았고 억압된 생활 속에서 고민하던 중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심장이 폭발하는 듯한 회개가 터지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방탕에 방입했던 자기 인생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지난 날들이 후회스럽게 스쳐 지나가다가 이런 자신도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예배시간에 빠짐없이 참여하기 시작했고 신앙으로 자신의 잃어버린 인생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범수가 되고 형기를 다 채우지 않고 광복절 특사로 석방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제일 먼저 그의 부모 앞에 무릎을 꿇고 죄를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함께 교회에 가지자고 했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토록 속썩이던 자식이 교회를 통해 새사람이 되어왔다는 생각에 바로 교회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모두 의아스럽게 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고 목사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사모님이 장로님 딸과 그 사람을 중매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성경학교를 다니면서 3년 코스를 1년 3개월만에 마스터하고는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쳐서 좋은 성적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한양대 건축과를 졸업해서 결혼을 한 후 건축회사를 운영하던 장인의 일을 돕게 됩니다. 그 당시는 건축붐이 일어 굉장한 호황을 누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의령에 세운 회사의 사장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끼리도 서로 사랑 안에 거하라 하셨습니다. 그 아들이 타락했다가 감옥에서 전도 받고 잃어버린 자신을 찾기 위해 회개하고 기도하며 성경에 심취하면서 성령께 이끌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자신을 찾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이처럼 내가 먼저 달라져야 합니다. 말과 행동, 그리고 생활습관과 모든 것이 신앙인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빛의 자녀같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열심히 다니는데 사고방식과 말투, 행동이 전혀 바뀌어지지 않은 상태에선 다시금 세상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고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했습니다. 생축은 구약 시대에 짐승의 피를 흘려 하나님 앞에 속죄제사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짐승처럼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며 죽임 당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괴로움을 덜어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대신 벌 받아 죽임당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로 그 아들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시키시고 보좌우편에 앉히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그에게 주시고 만왕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 닮아가는 변화가 없다면 빛의 자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합니다. 본문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하셨습니다. 더러운 것을 불의한 방법으로 취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한 몫이 가장 유익한 것이기에 탐욕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것이 내 몫의 복이라고 생각하고 만족함으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의 죄 값을 대신 벌받아 피로 그 사람의 죄 값을 치루고 구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무리를 성도(聖徒)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4절의 어리석은 말은 금방 탄로날 거짓말과 같은 것입니다. 희롱은 상대방을 비하시켜 놀리는 말입니다. 믿음의 자녀는 이런 말들을 삼가고 늘 돌이켜 감사

하는 말을 하라고 합니다.

5절에서는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은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합니다.

수많은 이단종파가 판을 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단은 성경의 역사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손쉽게 구원을 보장합니다. 이같은 헛된 말들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에 임한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하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못된 짓하고 말씀을 거역하며 불의와 죄악을 일삼는다면 하나님의 진노(震怒)가 임할 것입니다.

한 번 얻은 구원은 영원하다고 생각해서 무슨 짓을 하더라도 천국에 갈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잘 믿다가도 타락하면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이제는 예수님 안에 거한 사람들입니다. 즉, 빛에 거한 사람들입니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의 열매가 나타나야 할 것이며 온전히 변화된 행동과 성숙한 인격으로 나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보답을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해보면서까지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면 내 생애에 모든 것을 모두 바쳐서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좋은 것으로 우리를 기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국 신문 설교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기독교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금요일 오후 2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앞서가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만함. *헤어 컬러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컬러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컬러 전문점

헤어 컬러 \$40 up \$20 up
단, 컬러만 하시면 \$40

매직스트레이트 \$120 up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컬러는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컬러만 실제 사진들입니다.

PROFESSIONAL **WELLA SEBASTIAN**

앞서가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stylist**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 부터 토요일 까지 10:00 AM ~ 8:00 PM
Tel: 213-739-1022



가을에 떠나는 지중해 크루즈여행

10일 코스 10월 31일 출발, 11월 9일 도착

\$2199



Costa Fascinosa
2011년 건조한 114,500톤급 크루즈

스페인 | 프랑스 | 이태리 | 몰타

4000여명 이상의 탑승이 가능한 초호화 크루즈에서 무료로 즐기는 선내 시설 및 다양한 프로그램 (7개의 식당, 사우나, 수영장 등) 각 기항지 마다 여행전문 가이드 동행

\$2199 (2인 1실 기준-항공권, 크루즈 비용, 모든 세금 포함)
*수익금의 일부는 <사랑의 담요>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우리방송과 동서크루즈가 함께 하는 지중해 크루즈

서지중해 크루즈 코스 중에서 보석같은 코스로만 준비했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프랑스
마르세유

이태리
사보나, 나폴리,
카타니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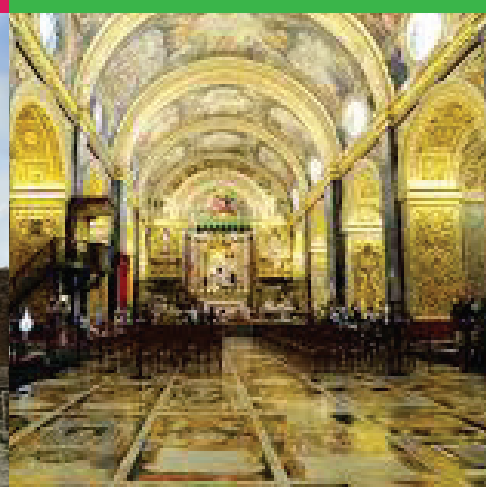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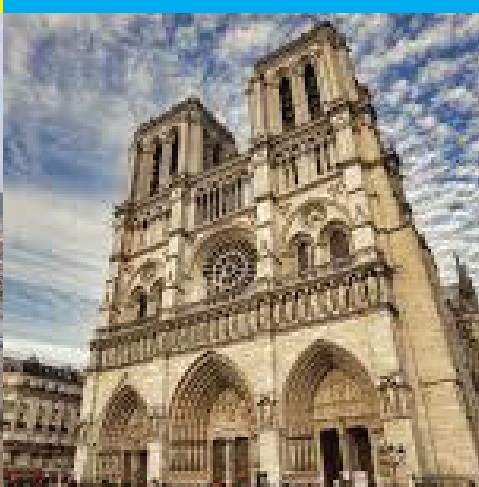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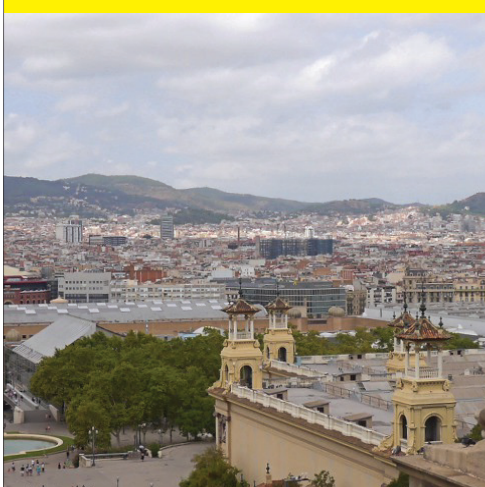
몰타
발레타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밤블라스 거리, 몬주익 언덕, 구엘공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까달루냐 광장 포함

프랑스, 마르세유 지중해 최대 항구, 노틀담과 가르드 사원, 최초의 석조다리 아비뇽 다리, 14세기 구교황청 포함

세계 3대 미항 중 하나인 나폴리, 시칠리아, 폼페이 유적, 르네상스 건축물의 도시 사보나 포함

지중해의 황금섬!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황금빛 찬란한 성요한 성당 관광 포함!



그동안 망설이셨던
지중해 크루즈
이번엔 떠나시죠!

빈민층 아이들과 노약자를 위한 <사랑의 담요> 기금 모금을 위한 <지중해 크루즈> 크루즈 전문여행사인 동서크루즈와 AM1230 우리방송이 함께 준비했기에 더욱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십니다.
2011년에 건조한 Costa Fascinosa 선상에서의 환상적인 10일의 크루즈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 \$2199 (2인 1실)-항공권, 크루즈, 모든 세금 포함 ✓ 각 기항지 마다 여행전문 가이드 동행

크루즈
문의 예약

동서 크루즈 & 여행사
213.378.0765

*선박,항공,기차,버스 등 교통 수단이나,현지 날씨에 의해서 일정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예고 없이 입/출항 조건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여행사에서는 이에 따른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711 S. Vermont Ave. Ste 214, Los Angeles, CA 90005



시애틀 글로벌 복음방송, 방송 선교 대회 준비모임

시애틀 글로벌 복음방송, 방송 선교 대회 연다

“복음을 전하는 메스컴 사명 활성화”

“시애틀 글로벌방송선교대회는 방송 사역자와 교회 방송에 종사하시는 분, 앞으로 방송과 매스컴을 통한 선교 활동을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방송으로 복음을 전하길 원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시애틀 복음방송(대표 이상진 장로)는 오는 9월 24일(월) 오후 7시, 타코마 중앙장로교회(담임 이형석 목사)에서 글로벌 방송 선교 대회를 개최한다.

선교대회의 주제는 “디아스포라를 향한 하나님의 꿈”으로 KWMC사무총장인 이승중 목사가 주 강사로 나서 간증과 특강을 전하며, 120억 기부 왕 강석창 회장의 간증, 김애자 박사의 피아노 연주와 간증, 고석기 선교사의 색소폰 연주와 간증, 워싱턴주 챔버 앙상블 연주 및 전경화 사모의 독창 등 다채로운 순서로 진행된다.

선교대회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실시되며 말씀과 기도가 있는 1부 전통적 예식에 이어, 2부는 회중과 함께 소통하는 친 청취자 방향으로 진행된다. 이날 대회는 실시간 온라인으로 스트림 방송을 할 계획이다. 선교대회 둘째 날과 셋째 날에는 교회 방송 제작 기술 향상을 위한 세미나도 진행된다.

이상진 장로는 “하나님의 꿈,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져 만민이 구원을 얻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 이것이 글로벌복음방송의 비전”이라며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서 지역 교회와 성도의 연합을 통한 섬김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 장로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글로벌 복음방송은 750만 디아스포라의 꿈을 함께 나누는 방송이며, 하나님의 꿈, 복음이 열방에 전파되기 위하여 지구촌 끝까지 나가고 있다”며 “방송을 통하여 지역 교회는 전도와 양육의 좋은 도구가 될 것을 확신한다. 또한 전도의 사각지대, 교회가 없는 지역에 목회자들의 은혜로운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을 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시애틀 글로벌 복음방송에서는 하루에 매일 한 시간씩 인도 방송 프로그램을 신설해 인도 12억을 향하여 매일 30분간 성경 읽기를 전하며, 30분간 목회자들의 메시지를 내보내, 힌두와 무슬림 지역에서 복음을 접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있다”며 “방송선교가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나팔과 도구로 쓰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선교대회에는 참석자 제한 없이 방송 선교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플 원 기자



서약하는 이경훈 목사 부부

크리스탈한인교회 이경훈 담임 목사 취임예배 드려

“하나님 주신 감동 붙들고 섬길 것”

크리스탈한인교회 이경훈 담임 목사 취임예배가 9일(주일) 오후 5시 드려졌다.

이경훈 목사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고든콘벨신학교 석사(Th.M), 트리니티복음주의신학교 석사(M.A), 풀러신학교 목회학 박사(D.Min)와 사우스웨스턴침례신학교 철학박사(Ph.D)를 졸업했으며 부산 수영로교회 부목사, 시카고 안디옥한인교회 담임목사, 샌안토니오 온누리교회 EM 교육목사, 남부개혁신학교 부교수 등으로 사역해 오다 크리스탈한인교회에 부임하게 됐다.

이날 취임사에서 이경훈 목사는 “교회의 아버지가 될 만한 능력도, 자질도, 사랑도 부족하고, 무릎도 약한 자가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두렵고 떨린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하신다”는 하나님이 주신 감동 하나를 붙들고 섬기고자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목사는 “시간이 갈수록 치유와 하나님의 부으심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이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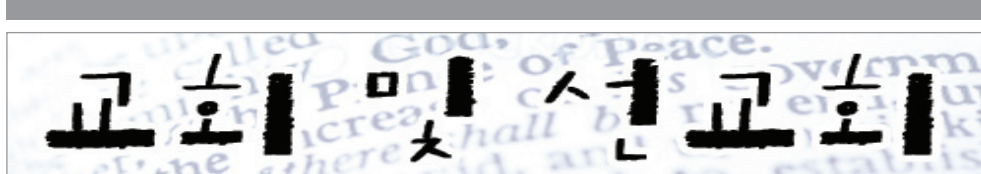
고자 한다.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 은사를 통해 주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격려와 기도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말씀을 전한 휴스턴 남부개혁신학교 이광진 총장은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과 같다. 특별히 가르치는 장로님 목사는 성도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도와야 한다. 영적지도자는 보호자가 아닌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 보호자는 직업이지만 아버지는 관계이다. 아버지로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총장은 “교회는 아버지인 목사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목사는 분이 되어 양 때들이 힘을 얻고 많은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당부했다.

크리스탈한인교회는 161 Church Rd. Smyrna GA 30082에 위치하고 있으며 문의는 770-690-9112로 하면 된다.

앤더슨 김 기자



LA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젊은이 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주일 - 비침중학교 / 토요사별 - 17와 버몬트 코너
주중사별 - 2610 W. Olympic Blvd #100, Los Angeles, CA 90006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단사를 배격하며, 이단가정을 치유하며, 선교영광을 순종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100, Los Angeles, CA 90006
주중연락처 T. (213) 386-2233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 - 토)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함,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h. #412 (6가와 카탈리나)
T. (213) 909-6473 / www.missionla.org

주일예배 오전 10:50
평신도 리더십훈련 매주 수 오후 7:00
금요 말씀과 삶 공부 오후 7:30
토요일 아침예배 오전 8:00

새니킴 담임목사

LA씨티교회

4322 Wilshire Blvd #301, LA, CA 90010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연습예배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후 12:45 유초등부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2:45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민음교회
피난처 되시는 예수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제자들의 공동체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토) 오전 6:0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이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에 위치)

1부예배 오전 7:30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금요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새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 11:00

김문수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3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전양예배 오후 3: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383-2600, (213) 383-2602 / laopendoor.org

대예배 1부 오전 8:00 세각죽 성경공부 오후 1:00
대예배 2부 오전 11:00 중보기도회 오전 11:00
유년주일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 오후 7:00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6:00 (화-토)

정병노 담임목사

새일교회
LA Sehil Presbyterian Church

760 S. 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 384-8690, (213) 620-7240 Email: lasehil2011@gmail.com
(87와 Westmoreland 교차로 First Baptist Church 옆에 있습니다)

주일예배 오전 10:45 금요예배 오후 8시
주일 오후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45(월-금)
매일 밤 기도회 오후 9시

박은중 담임목사

에일한인교회
치유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1611 Beverly Bl., Los Angeles, CA 90026
T. (213) 975-9191 www.wpcjesus.com

주일 1부예배 (분반)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분반)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분반) 저녁 8: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리셋예배(월요일예배) 오전 11:0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믿음, 꿈, 열매

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87-1700 C. (213) 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9:00 유년부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Youth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청년대학부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박효우 담임목사

풍성한 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며 선교하는 교회

2911 Beverly Blvd., LA, CA 90057
T. (213) 381-9490

1부예배 오전 8:00 EM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0:30 라틴노 주일 오후 5:00
3부예배 오후 1:00 라틴노 목요일 오후 7:00
4부예배 오후 6:00 수/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효를 소. 친 초 정신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중희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블러세(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hyun.org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예배 오후 7:30

장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LA 동부, 팜스프링스 지역, 라스베가스, 사우스베이, 토렌스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3부예배 오전 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이희철 담임목사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0:00 유주부 예배 오전 11:00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복음의 본질위에서 성령이 감동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주일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물로 새운 믿음이 열리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전 9:30, 11:00
2부예배 오전 9:30 영어, 유채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한어청년부 오후 2:15

김준식 담임목사

남가주살롬교회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 787-1004 shalomch.org

장주영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시
2부 예배 오전 10시 45분
중보기도모임 오전 9:15-10:00(주일)
수요성경공부 오후 8시
금요찬양대회 오후 8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월-금, 6시 30분(토))

뉴스교회
새 시대를 책임지는 건강한 교회
1550 Greenbriar Ave, Corona, CA 92880
T. (951)272-9126 / www.newsongcorona.com

조용철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김성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Youth &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토요찬양회 오전 10:00-오후 1:00

뮤리아타 한인장로교회
건강한 교회 성숙한 신앙
24736 Washington Avenue, Murrieta, CA 92562
T. (951)696-1034 / www.murietachurch.org

고태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선한목자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꿈꾸는 공동체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591-6500 sunhanchurch.org

고승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전 11:45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일찬양회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622-2324, F. (909)622-1480/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 (951) 966-9191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성전) 금요일예배 오후 7:30
오전 11시 (본성전) 매일OT 할-금 오전 6: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
본성전: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교회"
T. (760) 636-2675 / pspkmc.com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1부예배(토)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2부예배(토) 오후 11:00

나성금란교회
기본으로 돌아가는 교회 (계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 9:30/ 2부 11:00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4부(어린이예배) 오후 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권영국 담임목사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u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김경환 담임목사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3부예배(청년부) 오후 1:30 금요성령대방회 금 오후 7:20
EM예배 오전 11:00

박성규 담임목사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중용 담임목사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cornerstonetv.co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이름답도록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 (롬 10:15)

이호우 담임목사
15435 S. Western Ave. #200, Gardena, CA 90249
T. (562) 453-5644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

김우준 담임목사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주일1부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00
EM예배 English Ministry Sunday Service 11:00 am

고창현 담임목사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찬양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 F. (818)882-9777 www.churchmannan.com

주일1부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00
EM예배 English Ministry Sunday Service 11:00 am

윤 목 담임목사
28340 Highridge Rd., Rolling Hills Estate, 90274
T. (310)715-9902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주일 1부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1:30
주일 2부 오전 9:30 금요일성경집회 오후 7:45
주일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젊은이예배 오후 2:00

윤대혁 담임목사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오명찬 담임목사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최혁 담임목사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588 Altes Ave., Monterey Park, CA 91755
T. (818)363-5887 T. (232) 337-0900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최혁 담임목사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588 Altes Ave., Monterey Park, CA 91755
T. (818)363-5887 T. (232) 337-0900

인천퀴어축제 비판 여론 “인권? 평등? 함부로 쓰지 말라!”



인천퀴어축제를 규탄하며 반대집회가 열리고 있다. ©반동성애기독교시민연대

인천퀴어축제가 해당 지자체의 장소 사용 불허에도 8일 강행되자 지역 주민들과 기독교계가 강하게 반발했다. 또 이 같은 소식이 이날 온라인을 통해 알려지자 인천퀴어축제 측은 비판하는 여론이 강하게 쏟아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인천퀴어축제 허가 안내 왔는데 불법으로 진행했다” “시간 내서 (인천퀴어축제를) 반대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팩트는 인천동구청에서 퀴어 축제를 불허 했는데도 동성애축제를 강행하니 그 축제를 반대하는 많은 시민과 단체에서 막아선 것”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부 기사들이 인천퀴어축제 반대를 부정적 시각으로 보도하거나 마치 일부 기독교계만 반대하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하자 “실제 축제를 반대하는 쪽엔 종교를 떠나 건강한 성문화와 세대의 안위를 걱정하는 수많은 학부모와 시민들이 포함되 있다. 단순히 비판과 혐오를 쏟아

내는 반대 단체라는 표현은 잘못되게 아닐까”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이 밖에도 “혐오표현이 아니라, 우리사회 안전망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권리 행사” “단순 기독교 뿐만 아니라 인천시민들도 함께 참여하여서 법과 질서를 흐트러버리고, 자기들이 하고싶다면 그냥 인권의 이름으로 법 위에 있으려는 불법집회자들에게 대한 반대일 뿐” “인권이라는 단어, 평등이라는 단어 함부로 쓰지 말라” 등으로 성토했고 있다.

한 네티즌은 “뭐가 혐오인지 모르겠다.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하는게 혐오인가? 기본 가치와 정신을 부정하고 비도덕적인 일부 사람들의 성적취향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며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의 생각이 변했다고 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인간의 성은 남성과 여성 둘 뿐”이라고 역설하기도 했다.

김진영 기자

“결국 난민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슬림”



난민법 폐지를 위한 대국민 정책 토론회 현장.

난민법 폐지를 위한 대국민 정책 토론회 ‘국민이 먼저다!’가 9월 7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난민법 폐지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이슬람과 난민 이주의 관계를 고찰했다. 먼저 신만섭 교수(서경대 교양학부 외래교수)가 ‘유럽의 난민사태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라는 주제로 기조발표했다. 신 교수는 러시아와 미국, 유럽 등이 관계되어 내전이 일어난 시리아의 상황과 수니파, 시아파 등 이슬람 종교 갈등으로 인한 내전상황 그리고 서양 국가의 난민 수용으로 인한 현 상황을 설명했다.

다고 설명했다. 특히 2016년부터 2017년까지의 난민에 의한 폭동, 테러 현황과 이슬람과의 관계를 말하며 “난민 정책 또는 다문화 정책이 단순히 실패하고 말고 문제가 아니다. 실패하면 나라가 위태로워 진다”며 “책임을 지는 데까지 나가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유럽처럼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민국 난민법은 폐지해야’라는 주제로 발표한 이만석 대표(4HIM)는 “헝가리에서는 무슬림 난민을 받으면 징역 1년에 처해진다. 결국 난민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슬림”이라며 ‘세계인권선언문’을 부인하는 이슬람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유럽은 2015년도에만 100만명이 넘는 난민을 받았는데, 성범죄, 절도, 강도, 폭행 등의 사고가 나게 됐다”며 “특히 2015년 파리 테러 사건으로만 150명이 죽었다. 그때 두 테러범이 위장 난민 신청을 해서 들어온 사람이었다”고 했다. 이어 김윤생 대표(한국적외국인정책 세우기)가 ‘난민과 이슬람교와의 관계성’을 주제로 난민의 이주 정책에 대한 근본 원인을 분석했다. 김 대표는 “난민이 계속 이주하는 이유를 정치적으로는 답을 찾을 수 없지만, 이슬람이란 종교에서 찾을 수 있다. 꾸란에 기록돼 있기 때문”이라며 “과거 한국이 이슬람금융을 도입하려 할 때 그 금융의 일정 퍼센트가 이슬람 종교 기관에 내도록 돼있었다. 일부는 테러 작업으로 이용된다. 건전한 방법으로 운영되는 돈은 문제가 없지만 당시 우리가 도입하려던 것은 불투명한 검은 돈이었다. 난민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 대표는 “OIC 이슬람 국가끼리 모여서 ‘카이로 인권선언문’을 만들었다. 이슬람에 있어서 ‘남녀는 다르다’ ‘무슬림과 비무슬림은 다르다’는 등 세계 인권선언문과 충돌되는 부분에서 이슬람 율법을 우선으로 해서 그걸 지키고 있다”며 “한국에 와서 ‘인권’을 말하는데 ‘세계인권선언문’을 부인하는 그들의 모습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이외 류병균 상임대표(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는 “우리나라가 후진국 등에 무상원조로 사용하는 금액이 연간 3조 2천억 원이다. 또 일본은 4-5개국에서만 노동자를 받는데 우리나라는 16개국이나 외국인 노동자를 받고 있다. 이 사람들이 매년 해외에 보내는 공식적 금액은 15조, 비공식적으로 40조로 추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난민 이주는 이슬람화를 위한 전략, 헤지라(이주, 이민)”라며 자료를 통해 ‘헤지라’와 ‘지하드’(알라를 위한 이슬람의 전쟁)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

박성제 변호사(자유와인권연구소)는 “법적으로 난민개인이비호를 요청할 수 있지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국회의원 조경태(자유한국당 난민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재경, 박덕흠, 김석기, 박성중, 윤상직, 이종명, 정종섭 주최로 열렸다. 김진영 기자



뿔이 5개 달린 사단의 복장으로 등장한 드래그 퀸(여성 차림을 즐겨하는 남성 동성애자)이 아이들에게 동성애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REALOMARNAVARRO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 “드래그퀸 동성애 교육” 반대 시위 지지 “학부모들은 드래그퀸 반대할 권리가 있다” 주장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가 공공도서관 내 드래그퀸 스토리아워에 반대하는 학부모와 지역 활동가들의 노력에 지지를 표했다.

‘드래그퀸 스토리아워’(Drag Queen Story Hour)란 여장으로 분장한 남자들이 아이들에게 동성애와 관련된 책을 읽어주고 소개하는 시간을 의미한다.

지난 6일(현지시간) 그래함 목사는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드래그 분장을 한 남자들이 공공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준다고? 사람들이 시위에 나서서 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는 글을 올렸다. 그래함 목사는 “미국 남부에서 드래그퀸이 아이들을 상대로 ‘스텔라가 가족들을 데리고 와요’(Stella Brings the Family)라는 책들을 읽어주기로 한 계획을 미뤘다”는 AL.com의 보도에 이같은 반응을 보였다. 이 책은 어머니의 날에 두 명의 아빠를 데리고 오는 소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그래함 목사는 “드래그퀸 스토리아워는 LA,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뉴올리언즈, 뉴욕 등을 포함한 여러 도시의 도서관에서 2년 동안 진행됐다. 현재 남부에

서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반대에 부딪혔다. 한 도서관은 탈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루이지애나 라파예트 도서관 이사장은 오는 10월 드래그퀸 스토리아워를 개최하는 문제와 관련해 논쟁을 벌인 후 사임했다. 조엘 로비도스(Joel Robidos) 시장은 AL.com과의 인터뷰에서 “이는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를 우려한 부모들과 공동체 활동가들은 지난 8월 행사를 열었던 칼롬버스 도서관의 주변에서 시위를 했다. 커먼센스 캠페인 티파티(Common Sense Campaign Tea Party)라고 불리는 그룹은 학부모들에게 “앨라배마 모바일에 소재한 공공도서관에서 열리는 시위를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크리스천포스트는 “드래그퀸 스토리아워(Drag Queen Story Time)으로 유명한 영국의 드래그퀸 스토리아워를 모방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에도 드래그퀸 스토리아워가 등장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는 아이들에게 페미니스트 동화나 ‘성별이 유동적인’ 소설들을 읽어주는 것”을 의미한다.

강혜진 기자

루이 기글리오 목사 “믿음 좋은 청소년들도 대학 입학 후 신앙 포기”



©PASSION

미국 워싱턴주에서 부흥운동체인 패션(Passion)의 창립자 루이 기글리오 목사가 “베일러 대학에서 패션 집회를 시작하면서 많은 고등학생들을 만났는데 이들이 대학 입학 후 신앙을 거의 즉시 포기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루이 기글리오 목사는 최근 에센셜 처치 팟캐스트에서 지난 20년간 패션 집회 사역을 돌아보면서 “베일러의 여름 사역에서 만난 학생들이 미션 트립을 하면서 교회의 별들과 같았지만 대학생이 되면서 신앙은 장식품과 같아졌다”고 말했다. 그 때 기글리오 목사는 학부모, 교회, 학교 및 코치를 포함한 이들의 영향력이 대학 시절에 모두 중단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이들에게는 자유 선택권이 있고 자유의지가 있다. 모든 선택권이 탁자 위에 놓여 있고, 기본 신념이 무엇이든, 그들은 교실에서 매일 공격을 당할 것”이라며 “대학 시절은 삶의 전환점이며, 부모님이 믿었던 것을 같이 믿는 것을 멈추고 그들이 무엇을 믿을지 결정하기 시작하는 순간이다. 또한 교회의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과 함께 서기를 원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날의 대학생들은 여전히 매우 불안해하고 우울하고 반사회적이다. 매일 너무 많은 대화를 하고 있지만 더 이상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패션을 시작했을 당시 아

이들은 지금처럼 매일 매시간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다”면서 “지금 청년들은 해외에 사는 사람들과게임을 즐기고 다른 지역의 친구들과 화상 전화를 하거나 끊임없이 뉴스피드에 연결한다”고 말했다.

루이 기글리오 목사는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 인생에서 가장 혼란스럽고 절망적이고 실망스러운 계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급진적인’ 비전을 주신지 20년이 지났다. 그 비전이 바로 패션 집회였다. 이 집회의 주요 목적은 대학생들을 예수님과 관계로 이끌어 오는 것이었다”고 회상했다. 지난 1997년 첫 번째 모임 이후 수백만 명의 젊은이들이 패션 집회의 영향을 받았다. 당초 기글리오 목사는 4년 후 패션 집회를 계속 할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그는 “나는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도화선’이 되고 싶었다. 기념비를 세우고 싶지 않았다. 우리는 부흥을 보고 싶었다”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패션 집회를 이끌고 계시는 것이 놀랍다”고 말했다. 그는 “패션 집회가 단지 컨퍼런스나 이벤트가 아니”라고 분명히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목적이 분명한 집회”라고 설명했다. 2009년에 시작된 패션 시티 처치는 현재 애틀랜타에 2곳, 워싱턴 DC에 2곳을 두고 있다.

이미경 기자

O.C./앨버틴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구봉주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장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아대학원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1부(한국어) 오전 8:00 민경엽 담임목사 2부(한국어) 오전 11:00 말씀대상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3부(영어) 오후 1:30 한국학교(토) 오전 9:00 주일학교 오전 11:00 Youth Orchestra (주일) 오후 1:30 토요새벽연합예배 오전 6:30 나침반교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T. (562)691-0691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셀카족 예배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원예배 오전 11:00 남가주 벨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562) 524-2037 bethelchurchca@gmail.com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성령침례 오후 8:00 박재만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한국학교 오후 6:00 (금)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새벽 5:30 (월-금) 남가주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생명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주일예배(KM) 주일 11: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안창훈 담임목사 영아예배(EM) 주일 9:00am (매일 두번씩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회 Mission Community Church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오후 12:20 민승기 담임목사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9: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 (714)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8:45 금요사바오후 7:30 이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EM예배 오전 9:30
1부예배 오전 7:15 성인영아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김현호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15 일본어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한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권혁빈 담임목사 2부 오전 9:15 중등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한어부 오전 11:30 KMC대학원예배 오후 2:00 앨버틴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2부예배 오전 9:30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8:00(토) 4부예배 오후 1:30(청년 한국어) 장년부 수요일침례기도회 오후 7:30 FAME예배 오전 11:30(청년 영어) 앨버틴 침례 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우대권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30 목요일예배 오후 7:30 토요일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일예배 오후 7:30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일하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 (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주일 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주일 오후 1:30 김인철 담임목사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화-토 오전 6:00 E.M.(Youth) 오전 11:00 오렌지가나안장로교회 교회와 나는 하나이며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는 온평공동체 940 W. Wilshire Ave. Santa Ana, CA 92707 T. (714)549-0121 www.myocpc.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한기홍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09:3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락한 교회 삼남평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예배 오후 1:30 박훈 담임목사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주일예배 오전 11시 30분 람학훈 담임목사 어린이예배 오전 11시 30분 찬양예배 오후 7시(수) 제자성서 오전 9시 30분(금) 중보기도 오후 3시(목) 새벽기도 오전 6시(화-토)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8시 수요일예배 오후 7시 30분 백정우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시 30분 3부예배 오전 11시 20분 영아예배(EA) 오전 9시 30분 청년예배 오후 1시 30분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1부 예배 오전 8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안성복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시 30분 수요일예배 오후 7시 30분 Youth/ College 주일 오전 11시 다우니제일 교회 새 사람을 입으라 (엡4:24)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Sunday Service: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PASTOR JUSTIN KI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2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EM Sunday Service: 12:00 PM PASTOR JOSEPH SUK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ng Adults): 7:30 PM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PASTOR HAROLD KI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15 P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8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com		Sunday Service: 9:30 AM PASTOR RONNIE PARK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urch.org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Cornerstone Church 242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Sunday Services: 11:45 AM PASTOR DAEVIL YOON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inlandcn.org

사무직 직원 구함

영어를 구사하며 컴퓨터를
하실 수 있는 분으로
근무 시간은 월요일 ~금요일까지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상냥하신 분을 찾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 (213)663-9556

미스바 화요 여성 찬양예배

10월 2일 첫예배
LA 시티교회
매주 화요일
저녁 7:30

4322 Wilshire Blvd. #301, LA, CA 90010
문의: (213)344-6313
문정란 목사

가을 맞이 고국일주 여행

그리운 고국으로 어르신들을 편안하고 즐겁게 모시겠습니다.



일 정
- 고국방문 7박8일
한국일정 (10/6-10/13)
\$1,140 + 항공료
(특급호텔, 식사, 가이드팁 포함)
- 옴션 베트남 3박5일
베트남일정 (10/2-10/6)
고국+ \$450

www.KorusTour.com
문의: 213) 503-6196 계시카
213) 842-7079 JAY LIM

Bravo Gyeongnam, 상경, 가평, 부여군, 김해, DYNAMIC BLSAN, 원주시

하나님의 의, 사람의 의



민종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노르웨이의 피요르드(Fjord)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피요르드, 곧 빙식곡(氷蝕谷)은 빙하에 의하여 깊이 파인 절벽과 폭포를 가진 U자 형의 긴 계곡입니다. 노르웨이의 여러 피요르드 중에는 200킬로미터에 이르는 것도 있습니다.

빙하의 침식에 의하여 생긴 수직에 가까운 절벽들이 만들어내는 장쾌한 모습은 경이롭고도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피요르드의 아름다운 모습처럼, 인간의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하고 깊고 아름다운 흔적을 만들어낸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그 성취와 영향력은 수 킬로미터의 거대한 빙하가 계곡의 흙과 바위를 쪼개고 밀어 만들어낸 계곡처럼, 인류의 역사에 깊고 아름다운 흔적을 남겼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의”(the righteousness of God)를 새겨주셨습니다. 복음에는 사람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의(義)라 함은 정의(正義, justice) 혹은 공의(公義, righteousness)입니다. 정의는 부담스럽고, 두려우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단어입니다.

사람의 의는 종종 우리에게 정

계, 응징, 혹은 재판과 심판이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죄악의 역사 가운데서 정의를 세운다는 것은 심각한 연구와 고민과 판단과 논쟁과 갈등과 투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런데 역사를 관통하는 가장 아름답고 향기로운 의가 있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다른 말로 바꾸면 인간을 용서하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응징과 징계와 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롬 1:17).

하나님의 의는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나의 죄를 용서하여 의롭다 여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사람의 의와는 구별되어, 우리 죄인에게 용서를 베푸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달콤한 의, 향기로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의, 사람의 의
이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죄와 사망이 왕 노릇하였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사랑이 왕 노릇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죄로 관영한 세상 속에 새로운 구원의 강을 열어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도록 만듭니다.

복음은 새로운 능력입니다. 이념치는 하나님의 의,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난 의는 우리의 신분을 바꿀 뿐 아니라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킵니다. 값없이 받은 은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조건입니다.

이웃을 향한 겸손의 조건입니다. 범죄한 타인을 향한 용서의 조건입니다. 영적 성숙을 향한 소망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기”(justify) 때문입니다(롬 4:3,5,6,9,10,11,22,23).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여김”(justification)을 받았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것은 할례를 받은 후가 아니라 할례 이전입니다(창 15:6). 정죄하고 판단하는 인간의 의와 대조를 이루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역사의 깊은 강물이 되어 오늘도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갈 사람



제이슨 송 교장
새언약초중고등학교

만약 당신이 회사의 사장이나 조직의 책임자라면 자신과 함께 일할 직원으로 어떤 사람을 뽑겠는가? 학벌이 좋은 사람, 다양하고 풍성한 경험 혹은 성실성과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을 뽑을 수 있다. 교회나 기독교단체라면 당연히 신앙연륜이 많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선호할 것이다.

하지만 좋은 일꾼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자신에게 일을 맡길 주인을 이해하고, 주인이 원하고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헤아리는 마음과 태도다.

말은 고용주를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도, 고용주가 아닌 자기가 원하는 방향과 방식대로 (그것이 아무리 선하고 좋은 일이라 해도)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미국 플로리다 남해안 마이애미 시(市)는 쿠바와는 500km, 바하마스와는 296km 떨어져 있다. 고속 보트를 타면 몇 시간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다. 그래서 종종 마약 밀매단이 레이더 차단기를 설치한 고속 보트를 타고 해안경비대의 경비망을 교묘히 뚫고 다니며 마약을 운송한다.

이들을 단속하려면 마약 밀매단이 타고 다니는 것보다 더 속력이 빠른 보트가 있어야 하는데, 문제는 주 정부에 그런 경비정을 구입할 재정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 문제가 마이애미 지역사회에 불거질 즈음, 한 사업가가 해안경비대의 마약 단속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나섰다. 언론 매체들은 애타튀 이 소식을 보도했고 정치인들도 그 사업가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며칠 뒤 그 사업가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밝혀지면서 “그런 사람의 ‘자선’은 받아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어났다.

알고 보니 그는 대형 포르노 웹사이트 운영자였다. 결국 마이애미 주 정부는 “모든 사람이 눈살 찌푸리는 일을 통해 번 돈으로 마약 단속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그의 지원을 거절하고 말았다.

세상 사람들도 과정과 수단에 문제가 있으면 목적과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이의를 제기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라고 항의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떠해야겠는가?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의 성품(character 혹은 attribute)과 그분의 뜻, 그분이 세워 놓으신 계획, 그분이 원하시는 일의 방식을 아는 사람 말이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이유로 거짓말과 편법, 독재와 권위주의를 합리화하지 않으며,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목표와 목적뿐 아니라 과정과 동기도 하나님의 일에 중요한 부분임을 안다. 그런데 왜 이런 사람을 찾기 어려운 걸까? 이토록 그리스도인이 많은데 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이렇게 적은 걸까? 나는 그 이유가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의 경험과 배움을 앞세우는 인간의 본성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다윗은 성경에 기록된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이자 믿음의 영웅이다. 그런데 늘 다윗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와 비교당하는 비극적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 있다.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다. 수많은 설교와 책에서 그는 ‘시작은 창대했으나 나중은 심히 실패한’ 사람의 전형으로 취급당하지만, 사실 그는 진정 왕이 될 만한 인재이자 인물이었다. 하나님이 그를 잘못 보신 것이 아니었다(삼상 9:15-18).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을 정도로 멋진 외모와 풍채를 갖고 있었다(삼상 9:2, 10:23-24). 이스라엘 백성은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을 거부하면서까지 간절히 왕을 원했다.

그러니 자신들의 첫 왕이 될 사람의 자격을 까다롭게 따지며 촉각을 곤두세웠을 것이다. 그런 정황을 감안하면, 사울의 외모는 지도자로서 사람들의 신뢰와 지지를 이끌어 내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또한 그는 도망친 나귀를 찾아 집을 떠난 자신을 걱정할 아버지를 신경 쓰는 효자였고, 자신의 힘을 풀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신앙인이었으며, 왕이 된 자신을 무시하는 자들을 벌

하지 않는 은유한 사람이었다(삼상 9:5-10, 10:27). 또한 그는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자였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할 때를 정확하게 아는 지도자였으며, 강한 적과의 싸움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사였다(삼상 11:6-7). 유연히 벌어진 일이었지만 성령충만과 예언의 은사까지 체험하고, 왕이 된 이후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주변 민족들을 확실하게 평정하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 낸 사람이었다(삼상 10:10, 14:47).

사울을 찾아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안목은 정확했다. 그는 다윗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훌륭한 왕이 될 재목이었다. 하지만 사울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명하신 바가 아니라 자신이 알고 배운 바에 따라 행동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시작하기 위해 사무엘 대신 제사를 드리고,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거역하고 그들의 왕 아각과 가족들을 전리품으로 남겨 놓은 것이다(삼상 13:8-9, 15:8-9).

그렇다고 그가 내세운 명분이 아주 잘못된 것은 아니었다. 늙은 선지자의 늑장 때문에 바람 앞에 꺼져가는 등불 같은 조국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고, 아말렉의 기름지고 좋은 가족들로 하나님을 기뻐하실 제사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마음속에 숨겨진 동기와 해결 방식이었다. 우리는 사울이 성장 과정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알 수 없지만, 왕이 된 이후 그가 보여 준 모습을 통해 그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가르침을 받았는지 짐작할 수 있다.

나무는 열매로 아는 법이니 말이다(눅 6:44).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된 다윗의 장점을 이 한 마디로 표현하신 것이 아닐까?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행 13:22).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든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원칙을 따라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다. 사울과 달리 말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올바른 가르침에 따라 일하며 살아갈 사람을 찾으셨다.

명성교회 재판 이유로 총회재판국 국원 전원 교체 2020년, 총대 수 1,500명에서 1,000명으로

예장 통합 제103회 총회 셋째날 오후 회무 시간 처리가 예정됐던 명성교회 청빙유효 판결이 포함된 총회재판국 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총회재판국 보고에서는 신입 총회재판국장 임재일 목사에게 명성교회 청빙유효 판결을 내린 총회재판에 대한 재심 여부와 기존 공천받은 총회재판국원들 교체 여부가 관심을 모았다.

총대들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명성교회와 관련이 있는 재판국원들은 교체해야 한다”, “재판국원 전원을 교체해야 한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

1시간 가까운 토론 끝에 총대들은 명성교회 총회재판이 헌법정신에 위반했다는 이유로 다수결에 의해 전원을 교체하기로 했다. 공천위원회는 재판국원 15인 전원을 재공천하기로 했다.

이에 공천위원장 김재남 목사는 “공천에 있어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는 분들은 배제시키는 것이 재판의 공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며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야 하는데, 전문가들을 포함시키면서 순수하게 재판을 해주실 분들이 많지 않으니, 부탁을 드릴 때 거절하지 말아달라”는 의

견을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처리에서는 정치부 이후 제102회기 헌법개정위원회의 헌법개정안 축조 심의가 진행됐다.

심의에서는 지난 회기 결의대로 기소위원회는 폐지됐고, 재심의 경우 103회기 헌법개정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102회기 헌법개정위원장 이정원 목사는 “재심재판국과 제2재심재판국을 없앴더니, 총회 현장에서 플래카드 들고 억울함을 표시하는 분들이 확실히 줄어들었지만, 판사도 사람이기에 재판이 잘못될 수 있기에 억울함을 어떻게 풀 수 있느냐”며 “특별재심 하나는 살려두자는 의견이 많더라”고 발언했다.

이 외에 헌법시행규정에서 위임 목사 청빙시 ‘총회연금 계속납입 영수증’ 별도 첨부 조항 신설 건은 표결 결과 1057명 중 612표로 2/3을 넘지 못했다.

또 헌법시행규정에서 한국기독교공보사, 총회유지재단, 한국장로교복지재단, 총회연금재단, 한국장로교출판사,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예수병원, 대구에락원 등을 산하기관으로 명문화했다. 산하기관은 헌법 정치 제92조 1-4항에 의거, 소속 처리회의 허락을 받아 설립한

기관이며, 정관의 승인, 감독, 재정 검사, 명령을 받는 기관이다.

앞서 정치부 보고에서는 노회와 총회의 법리부서를 폐지해 달라는 건은 1년간 더 연구하기로 했고, 교회 설립 및 신설 거리 500m 제한에 관한 규정은 폐지하기로 했다.

또 현재 목사·장로 750명씩 총 1,500명인 총회 대의원 숫자를 2020년부터 1,000명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정치부 직전부장 김지한 목사는 “1,500명이 한꺼번에 모여 회의하는 것에는 장소와 교통, 숙식 등의 비효율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따른다”며 “1,000명으로 총대 수를 줄일 경우 각 권역별로 총회 개최 가능 교회 수가 5-6곳씩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안건은 표결에 돌입, 재적 1,033명 중 608명의 허락으로 받아들여졌다. 이 안건은 헌법개정위로 보내 2/3의 동의를 얻으면 통과된다. 또 교통과 비용 등을 이유로 제주노회의 권역을 기존 서부권역(전라도)에서 서울강북권역으로 옮겨달라는 건은 1년간 연구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회무 처리 후 저녁 시간에는 한국교회 아프리카 선교 50주년 기념 에큐메니칼 예배가 드려졌다.

이대웅 기자

[합동 최종] 3일 만에 안전 다 처리하고 파회 ‘이례적’



예장 합동 제103회 총회가 10일 오후 대구 반야월교회에서 개최했다.

예장 합동 제103회 총회가 당초 계획된 일정보다 이틀 앞서 12일 모든 안건들을 처리하고 파회했다. 예정된 파회 시간을 연장하면서까지 회의를 진행했던 과거에 비춰볼 때 매우 이례적이다.

교단 내에선 “변화의 신호탄을 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변화하라!’라는 주제로 10일 개최한 총회에서 첫날 신입 총회장이 된 이승희 목사는 교단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정기총회의 그릇된 ‘정치화’를 성토했다. 이 총회장의 이와 같은 뜻은, 무엇보다 총대들의 협조 속에서 회무 진행 가운데 그대로 나타났다. 총대들의 무분별한 발언을 제한하고 쟁점 안건들도 비교적 짧은 토론을 거친 뒤 의결했다. 예전보다 총대들의 견해가 극단적으로 나뉘는 안건들이 거의 없었

다는 점도 빠른 회무 처리를 가능하게 한 요인이었다. 내용적으로도 변화의 조짐들이 많이 나타났다. 우선 ‘난립’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각종 위원회를 임원회에 맡겨 정리하기로 했다. 실제 이번 총회 현장에서 활동이 종료된 위원회들도 있었다. 여러 명목으로 위원회 설치를 요청한 현안들도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일부 인사들이 돌아가며 교단 내 요직을 차지해 소위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구습도 타파하기로 했다. 규칙 개정을 통해 한 상비부에 있었던 이로 하여금, 2년 내 다른 상비부원이 될 수 없게 한 것. 과연 예장 합동 측이 이번 정기총회에서 보여준 여러 변화의 조짐을 발판으로 앞으로 성공적인 교단 개혁을 이끌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진영 기자

[통합] 림형석 총회장 “동성에 합법화에 반대”

예장 통합 제103회 총회 둘째날 오전 회무처리 후 각 부서별 모임 시간, 총회장 림형석 목사와 부총회장 김태영 목사·차주욱 장로가 기자회견을 갖고 포부를 밝혔다.

림형석 총회장은 “목회만 하던 사람이라 역량이 부족하고 도움이 필요한데, 할 수 있는 기회 주시고 총대들이 세워주셔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총회를 섬기고자 한다”며 “올해는 3·1 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매우 의미 있다”고 말했다.

림 총회장은 “100년 전 한국교회가 1.5% 정도의 소수 교회였지만, 나라 잃은 백성들을 위해 순교의 정신으로 만세운동에 앞장서 장소를 제공하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감옥에 가면서 헌신했다”며 “그만큼 한국교회가 민족에 소망을 줬는데, 100년 후 지금의 한국교회는 민족에 소망을 주고 있는가? 이럴 때 우리 교회가 다시 한 번 기도하면서 영적 능력을 회복하고 민족에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자”고 말했다.

김태영 목사부총회장은 “103회기 부총회장으로서 총회장님을 잘 보필하고자 한다”며 “1년간 잘 준비하고 공부해서 다가오는 104회기, 기도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섬



103회기 총회 정·부총회장이 기자회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기겠다”고 전했다.

림 총회장은 ‘작은 교회 지원’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그는 “저희 교회 9,096개 교회 중 성도 50명 이하가 46%, 200명 이하가 81%로, 작은 교회가 많다”며 “지난 13년간 교단에서 교회 자립화 운동과 동반성장 사업을 통해 1년에 170-180억원을 지원하면서 약한 교회들을 열심히 도왔다”고 언급했다.

그는 “목회자들의 영적 지도력 개발을 위한 세미나를 열고, 네트워크를 통해 각 노회에서 지원하는 선배 목회자 1명이 지원받는 후배 목회자 4명 정도를 맡아 매달 부동반 모임을 갖고 사정을 나누면 어떨까”라며 “작은 교회가 없어지

면 큰 교회도 없어지는 것이다. 결국 큰 교회가 작은 교회들을 도와야 하는데, 그러려면 분위기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림형석 총회장은 “동성에 문제 역시 성경에서 분명히 금하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창조 신앙을 갖고 있으므로, 동성애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외국에서는 동성애 합법화 이후 원치 않는 피해나 역차별을 당하는 등 동성애를 반대하면 여러 불이익을 받고 있다. 동성애자를 싫어하는 것은 잘못 됐지만, 동성애 자체를 합법화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대웅 기자

[합동] 총회장 이승희 목사 부총회장 김종준 목사 반야월교회서 제103회 총회 개회



부총회장에 당선된 김종준 목사가 기뻐하고 있다.

3파전으로 관심을 모았던 예장 합동 제103회 총회 목사부총회장 선거에서 김종준 목사가 당선됐다. 총회장에는 지난 회기 부총회장이었던 이승희 목사가 무난히 추대됐다. 10일 대구 반야월교회(담임 이성희 목사)에서 개최한 총회에서 이후 임원선거가 진행돼, 김종준 목사가 총 1,531표 중 720표를 얻어 641표를 얻은 민찬기 목사, 250표에 그

친 강태구 목사를 제쳤다. 또 3명이 경합했던 부서기에는 정창수 목사가 605표를 얻어, 484표의 이형만 목사와 342표의 윤익세 목사를 제쳤다.

이 밖에 장로부총회장에 강의창 장로, 회계에 이영구 장로, 부회록서기에 박재신 목사는 모두 단독출마여서 투표 없이 당선됐다.

김진영 기자

숨겨진 20야드를 찾아드립니다

골프클럽의 성능 70%는 샤프트에 달려 있습니다

휘텍골프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나만의 **名品** 클럽을 가져 보세요!

영/업/시/간
화요일~토요일
10:00 am ~ 8:00 pm

세상에
오직 하나
...
당신만을 위한 맞춤클럽

미국 스펙의 R(Regular)는 아시안 스펙 S(Stiff)정도로 강하고 무겁습니다. 제조사마다 같은 강도도 스펙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한 샤프트의 강도를 알려면 Shaft Frequency C.P.M (1분 동안에 샤프트가 진동하는 수)을 측정하여 알 수 있습니다. 무게, 강도, 길이등 미국 스펙 골프채로 좋은 경기력 향상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으로 자신의 스펙을 찾으세요.

Private Lesson
단기간 집중 골프스윙 완성
스크린 통한 구질 분석, 자신의 스윙을 모니터로 보며 교정

Fitting Technology GOLF
FiTec
MATRIX SHAFTS **FOURTEEN**

휘텍골프 피팅 스튜디오
213.327.4080 / 213.315.5179
3050 W. 7th St #101 Los Angeles, CA 90005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Master Tailor
김병호

CD PRINTING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www.junimmedia.com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장,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
 1,000장 \$350
 3,000장 \$950
 (3천장 이상시 디자인무료)

\$160 (디자인 포함)
 Retractable Banner \$140

ORION AUTO SERVICE
 ASE CERTIFIED
 •SMOG •INSPECTION
 •TUNE-UP •BRAKE
 •FUEL INJECTION ETC.

2217 S. Normandie Ave.
 Los Angeles, CA 90007
 Tel. (323) 732-4669

가스 스테이션
 옆에 있습니다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 (213) 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 580-2424
 (310) 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 90248

리프팅 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도입
 *리프팅 라인 4회 \$999
 *부분지방 분해 5라인 8회 \$999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 각종 피부병과 아토피
- 습진 화농성 여드름

✓ 손가락 { 류마티스 관절통증 }
 ✓ 발가락 { 퇴행성 관절통증 }
 ✓ 마디관절 { 손목, 발목 질환 }

*지독한 코골이 증상

- 치질(항문하혈, 통증)
- 독소제거, 혈관 청소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불임증 (자궁축, 하혈)
- TMJ 턱관절 장애
- 우울증
- 관절염, 다리 쥐 오름
- 원형탈모, 지독한 비듬
- 만성두통, 요통

배 빠는 속변약!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치아 파우더 3대째 기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달분 \$6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213) 380-7800
 각종보험취급 (교통사고 전문 병원)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 (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 10시~5시 / 토 10시~2시

www.sellacare.com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세트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영양제

서울대학병원 암센터내 고려대 안암병원내 입점

혈액 · 혈관 · 기운 · 면역

- ✓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 내에 영양을 공급하여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함으로서 무슨 병이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 ✓ 세계 특허(특허번호 51281391) 공법으로 제조되어서 복용 후 체내 흡수율이 다른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흡수율 92-96%)

유태인 특수영양제 M3세트
SELLA CARE
 제품상담문의 213.435.9600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혈액 해독 / 기력 회복
 천연 항염, 혈관 탄력
 심장, 뇌 혈전 용해
 뼈, 골수 영양 공급

눈으로 직접 확인 하세요!
 병치료와 장수의 시작은 피를 맑게 하여 알칼리화 시키는 데 있습니다.

산성	중성	알칼리성
3.5	6.0 7.0 8.5 9.0 9.5	셀라케어 10

많은 영양제중 M3만이 알칼리 테스트(PH Test)에서 최고 품질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아들의 방향 속 주님의 음성 “내가 키우리라”

《아버지가 변하면 아들이 변한다》의 저자 오운철 목사 인터뷰

넓은 집, 좋은 학교, 가족예배, 가족여행, 아들에게 부족한 것 없이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주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차츰 부모의 기대와 어긋나기 시작했다. 담배를 피고, 할머니께 험한 말을 퍼붓고, 학교성적이 떨어지더니 급기야 학교를 자퇴했다. 마음을 잡고 커뮤니티 컬리지에 진학하는가 했지만 결국 포기하고 게임을 시작했다. 상담도 받아 보았지만 아들은 자신이 시작한 일을 제대로 끝마치지 못한 채 방향을 거듭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 오운철 목사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아들의 방향을 바라보며 매일 일기를 썼다. 매일 일기를 쓰는 것은 마음의 힘든 것을 표현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기기를 통해 가르치시고자 하는 교훈을 적기 위해서였다. 그는 지난 7년은 앞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지나오는 것 같았다고 말한다. 7년의 고난을 거쳐 어느덧 잔잔한 호수를 지나고 있다고 말하는 그는 올해 7월, 지난 7년간의 일기를 바탕으로 《아버지가 변하면 아들이 변한다》를 펴냈다. 그를 만나 이 책이 나오기까지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그에게는 공학도, 연구원, 선교사, 목회자라는 여러 직함이 따라 붙는다. 서울대학교와 동대학원에서 재료공학을 공부하고, 포항공대에서 공학박사학위를, 총신대 신대원에서 목회학을, 풀러신 학교에서 선교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한국 네비게이트선교회, 세계로선교회에서 선교훈련을 받은 후 선교에 동참했으며 동양선교교회를 섬겼고 현재는 새생명비전교회를 섬기고 있다. 2009년 《끝까지 쓰임 받는 비결》, 2013년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고》에 이어 이 책은 그의 세 번째 저서다.

책을 집필하게 된 계기는?

크리스천의 삶에는 단계가 있다. 내 개인적으로 한 단계가 끝나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정리해야 한다는 신조가 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의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베풀은 은혜를 정리하고 또 동일한 일을 겪은 이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다.

아들이 방향하고 회복되기까지 7년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했다. 아들의 방향의 원인은 무엇이었나?

2010년부터 2017년 말까지의 경험을 담고 있다. 7살 때 미국에 와서

16살 때부터 갑자기 기대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였다. 사춘기 호르몬의 영향이 크고 두 번째, 공부하다가 좌절이 왔는데 그때 부모가 적절하게 알아차리지 못해 문제가 커졌다. 또 생후 3세까지 엄마와의 결속이 중요한데, 어릴 때 2주정도 엄마를 떠나 있던 것도 문제의 원인이 됐다.

아들은 9학년 때까지 공부를 잘하다가 10학년 때 AP과목을 들으면서 좌절을 경험했다. 적절하게 대처를 해줬어야 하는데 사역으로 바쁘다 보니 알아채지 못했다. 또 아들은 내게 도움을 청해 왔지만, 교회 일로 바빠 도와줄 수 있는 시기를 놓쳤다. 그런 일이 반복되니 아들도 ‘부모에게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겉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고 늘 함께 있었지만 사실 할머니와 고모에게 아들을 맡기고 아들에게 신경을 쓰지 못했다. AP과목에서 좌절을 겪은 후 아들은 고등학교를 자퇴했고, 이후 커뮤니티 대학도 들어가고, 일반대학에도 진학했지만 잘 적응하지 못한 채 그만두길 반복했다. 성격도 점점 거칠어졌다. 또 아브라함의 약점이 이삭에게 전해지듯, 내가 갖고 있던 우울증이 아들에게 전이되었다.

목차에 ‘아버지의 부패한 사랑’이라는 챕터가 나온다. 어떤 의미인가?

영적인 의미다. 원래 염려가 많은 성격이었는데 막상 현실에 문제가 닥치니 염려를 해어나지 못했다. 어떤 영성가는 염려를 부패한 자기 사랑이라고 말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니 염려하게 되기 때문이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나?

상담을 통해 아이의 문제인줄 알았는데 부모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려서 어머니와 분리되어 애착관계를 잘 형성하지 못한 것과 자라면서 우리가 바빠서 아이와 대화를 나누지 못한 것, 그리고 미국 학제에 대해 몰랐던 것도 문제였다.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부족함 없이 공급해주고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자신했지만 사실 거기엔 큰 결핍이 있었다. 아들에게 잘못을 시인하고 적극적으로 아빠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게임에 빠져 있는 아이를 구하기 위해 여행을 가고 교제를 하기 위해 노력했다. 상담을 하면서 부모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기 시작했다. 아들은 나의 잘못을 비난하며 격렬하게 분노를 터뜨리기도 했다. 이것이 꼭 옳은 방법인지는 확신할 수 없지



새생명비전교회 오운철 행정목사.

만, 이를 계기로 아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부모의 말을 듣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 중에도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다. 노력이 헛되지는 않았지만 사실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다. 한번은 집에서 난동을 부리며 기물을 부수고 꽃병을 내리쳤다. 폭력적인 행동을 그냥 내버려두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경찰을 불러 아들을 집에서 내보냈다. 아들에게 분명한 경계를 지어주고 독립을 시키기 위해서였다. 그때 한 달치 용돈을 주며 학교로 돌아가면 학비는 대주지만 학교로 돌아가지 않으면 스스로 돈을 벌어서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때부터 아들은 친구 집에 머물면서 현실인식을 하기 시작했다. 아들은 이를 계기로 ‘부모도 나를 버릴 수 있구나, 부모를 언제까지 의지할 수 없고 스스로 서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야 하고 책임져주고 받아주어야 한다. 그러나 온전한 사람으로 자녀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부모의 권위가 도전하거나 불순종하지 않도록 훈육해야 한다. 아들에게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분명한 경계를 지어줘야 하는데 저는 이것을 늦게 했다. 한번은 아들이 군대를 가겠다고 했다. 당시 아들의 상황으로 생각해 볼 때 그것은 도피였기 때문에 나는 아들의 결정에 반대했다. 우울증이 완전히 회복된 것이 아니고 집에서 좀 더 회복이 필요하다고 설득했다. 아들은 엄청난 반발을 했는데 끝까지 나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아들은 두 시간 만에 안 가겠다고 생각을 바꿨다.

자녀에게 해롭고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몸을 던져 막았다. 아들이 무작정 돈을 달라고 했을 때, 태도가 바르지 않아 거절한 적이 있었다. 아들은 문을 두드리더니 발로 차 문을 망가뜨렸다. 이때도 아들에게 스스로 문을 고치도록 시켰다. 아버지는 끊임없이 경계 짓는 일을 해야 한다. 공부를 그만둔 채 집에 왔을 때는 스스로 밥을 차려 먹게 하고 청소시키고 밖에 나가서 일하게 했다. 처음에는 이 방법이 소용이 없는 것 같았지만 조금씩 변화가 나타났다. 그 마지막 단계가 집에서 내보내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방법을 손쉽게 사용하면 안 된다. 아이가 충분히 잘 못했을 때 이 방법을 써야 한다.

아들은 회복과 좌절을 반복했다. 한번은, 아들이 여름방학 동안 단기 선교를 갈 계획이었으나 훈련을 받지 못해 제외되자 불만을 품고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 방학 3개월을 홀로 있게 된 것이다. 나는 터키로 단기선교를 가 있었는데 혼자 있게 된 아들 때문에 염려가 가득했다. 당시 터키 단기선교를 이끄시던 선교사님의 기도에 관한 메시지를 통해 내 기도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와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고 나의 필요는 나중 되어야 하는데 내 기도의 우선순위가 잘못돼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음은 예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지혜를 주셨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내어놓지 못한 채 여전히 움켜쥐고 있는 게 있었다. 바로 아들이었다. 그것을 깨닫


고 아들을 하나님께 맡기자 어느덧 내 안에 염려가 사라졌고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역사하기 시작하셨다. 이때의 기간을 이용하여 아들에게 책을 읽도록 권면하고 책을 소개했다. 주로 신앙적인 책들이었다. 아들은 동의하며 책을 읽었다. CS 루이스의 책들, GK 체스터턴의 책들을 읽으면서 신앙에 대한 의문점들을 해결하며 해답들을 찾아갔다. 그렇게 마음을 잡은 후 3학년과 4학년 내내 모두 A학점을 받고 USC여카운티 대학원에 들어갔다.

마지막 챕터 ‘불같은 고난 속에 감춰진 은혜’에 대해 말씀해주신다면.

고난을 지나고 나니 제 믿음이 새롭게 되고 기도가 간구에서 감사의 기도로 바뀌었다. 늘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아이 같은 기도를 드렸다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배우게 하셨다. 고난을 통해서 소망을 배우는다는 말처럼 이런 과정 속에서 신앙이 흘러 내려가 비전이 성취되는 것을 체험했다.

아들을 위한 바람은?

아들은 지금은 자기가 세운 목표를 한 걸음 한 걸음 성취하고 있고 좋은 회계법인에 들어가고 싶어한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라 생각한다. 아들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길 기도한다. 주디 한 기자



미주 크리스천 신학 대학교(원)

2018년 가을학기 신(편)입생 모집

본교 지원시 특전

- 1) 기독교 복음 선교 연합 총회(미주내), 개혁 장로회 한미 연합 총회 (한국과 미주)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대학(BA)과정이나 교역학 석사(M.Div) 과정 지원자는 첫 등록학기에 80%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 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9월 27일 개강

입학상담: 213.272.6031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L.A, CA 90057

신학대학교

신학과(B.A) | 126학점

신학대학원

- ◎ M.Div 교역학 석사과정 | 96학점
- ◎ M.A 석사과정 | 48학점
- ◎ Th.M 신학 석사과정 | 48학점
- ◎ D.Min 목회학 박사과정 | 48학점
- ◎ Th.D 신학 박사과정 | 56학점

WWW. CTUIA.ORG

<미스터 션샤인>속 밀서 지냈던 '요셉' 선교사의 실제 모델은?

우리나라 첫 선교사를 만나다(3) '한국의 친구' 호머 헐버트



헐버트 선교사

인기리에 방영중인 tvN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는 '선교사'가 극의 주요 흐름을 좌우했다. 종살이하던 주인공 '유진 초이(이병헌)'은 어린 시절 쫓기다 선교사 '요셉'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건너가 해병대 대위이자 미 공사관 영사대리로 고국에 돌아온다. 그러다 선교사가 의병활동을 도우

등으로 돌아보고자 한다.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한 외국인

본지에 매주 연재되는 '브리콜라주인 더 무비' 박옥주 박사(연세대)는 극중 '요셉' 선교사의 실제 인물들 호머 헐버트(Homer B. Hulbert, 1863-1949) 선교사로 지목했다.

개신교 선교사들 중 실제로 독립운동에 적극 나서 행동했거나 그 때문에 죽음을 맞은 인물은 많지 않았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 러시아 등 열강의 각축장이던 일제강점기 이전 대한제국에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선교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 역시, 큰 외교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었기에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런 가운데 헐버트 선교사는 가장 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활동했다. 그리고 드라마 속 요셉 선교사처럼, 고종의 밀서를 휴대하고

손인 어머니 메리 우드워드 사이에서 태어났다. 1884년 뉴햄프셔 주 명문 다트머스 대학을 졸업하고, 유니온 신학교 재학 당시 조선 조정의 정식 초청으로 1886년 6월 우리나라에 왔다. 처음에 관립 소학교 교사로 있다가, 육영공원이 설립되자 8월부터 외국어 교사가 됐다.

그러나 1891년 육영공원 축소 운영으로 인해 교사직을 사임하고 미국으로 돌아갔다가, 1893년 9월 미국 감리회 선교사 자격으로 다시 들어왔다. 돌아온 그는 배재학당 내 삼문출판사를 중심으로 주로 문서선교에 관여하면서, 다양한 주제로 한국에 대한 글들을 발표했다. 헐버트 선교사는 우리나라 YMCA의 초대 회장을 맡기도 했다.

◆밀서 들고 미국으로... 밀사 되어 헤이그로

YMCA 창설 2년 후인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돼, 우리나라는 외교권과 재정권을 일본에게 빼앗겼다. 앞서 미국 정부는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이권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야망을 묵인·방조하는 '가쓰라-태프트 비밀조약'을 체결했다. 당시 주한 미국 공사였던 알렌은 이를 반대하다 본국으로 소환됐고, 국내 미국 선교사들 역시 미국 정부의 불의를 규탄하는 시민대회를 열었다. 이때 고종 황제는 미국에 밀사를 파송하고자 했는데, 발탁된 인물이 바로 헐버트였다.

헐버트는 급히 미국으로 돌아가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달하는 동시에 대한제국을 구하려 했다. 1882년 체결된 조미수호조약 제1조에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제3국에 의해 침략을 당했을 때는 다른 일방은 이에 간섭하여 우호적으로 이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일본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결국 밀사 활동은 실패로 돌아갔다.

헐버트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준 열사의 자결'로 유명한 1907년 제2차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고종의 밀사로 파견됐다. 미국에서 뜻을 이루지 못했던 헐버트 선교사는 1906년 다시 우리나라를 찾아 고종에게 헤이그 밀사 파견을 건의했다.

이후 대한제국 대표들보다 먼저 헤이그에 도착한 그의 역할은 이상설과 이준, 이우중 등 대한제국 특사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자문하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밀사라고 발설함으로써 3인의 밀사를 보호하고자 했으며, 유럽 언론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조선



양화진 외국인선교사묘원 내 헐버트 선교사의 묘. "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는 글귀가 쓰여 있다.

독립의 정당성을 호소했다.

그는 1909년 8월 한국에 돌아와 강제 퇴위당한 고종으로부터 상하이 독일에 은행에 예치해 둔 25만 달러 상당의 비자금에 찾아 안전한 은행으로 옮겨 달라는 밀명을 받았으나, 이 역시 일본 통감부의 간계로 결국 다 빼앗기고 말았다. 이 자금은 해외 독립

때는 한동안 프랑스 YMCA 간사로도 일했다. 미국에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의 독립을 주장하고, 정부의 대한 정책을 비판하며 한국을 끝까지 도왔다.

헐버트 선교사는 우리나라의 해방 후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초청으로 84의 고령임에도 1949년 국민 방한



요셉 선교사. 의병들을 도우려다 살해당하는 것으로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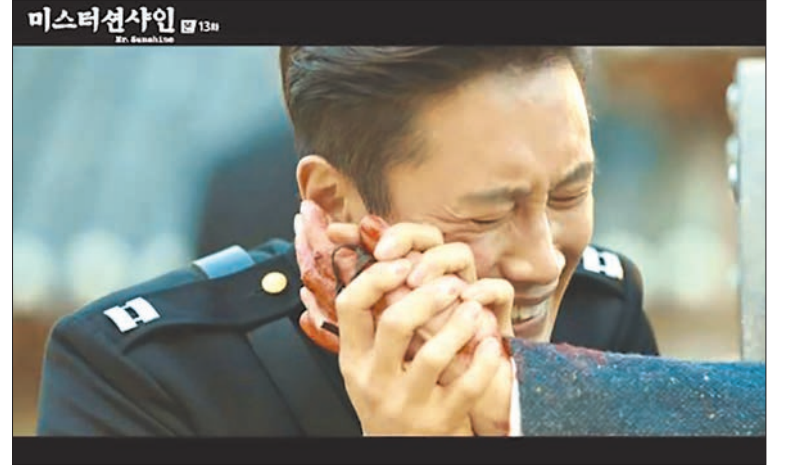
려다 죽음을 당하자, 그를 은인으로 생각하던 주인공 유진은 진상을 파헤치면서 의병들에게 더 가까이 가게 된다. 그런가 하면 여성이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던 시대, 여자 주인공 '고애신(김태리)'은 선교사가 세운 학당에서 여선교사로부터 영어를 배우게 된다. 이들 외에도 구동매(유연석), 김희성(변요한), 쿠도 히나(김민정), 이완익(김의성) 등이 등장해 구한말 조선의 생활상 등을 잘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구한말 선교사들은 나라의 운명이 바람 앞의 촛불 같은 조선인들에게 등불 같은 존재였다. 왕인 고종도 선교사들을 신뢰했고, 선교사들은 백성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그들의 이름을 치료했다. 모처럼 대중매체에서 그 시대 기독교를 (있는 그대로) 긍정적으로 보여주는 이 때, 구한말 목숨을 걸고 이 땅에 들어온 주요 선교사들의 이야기들을 책과 문헌, 영상

미국에 돌아가 국무장관과 대통령에게 면담을 시도했다. 때문에 양화진 외국인선교사묘원에 있는 그의 묘비에는 '한국의 친구', '비전의 사람'이라고 돼 있다(Man of vision and Friend of Korea). 그는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한 외국인'으로도 불린다.

사실 그의 묘비에 적힌 글 중에는 이보다 유명한 문장이 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I would rather be buried Korea than in Westminster Abbey)". 그의 기일인 8월 5일이면, 매년 헐버트박사 기념사업회 주최로 양화진 외국인선교사묘원에서는 추모식이 열리고 있다.

오래 전학부 선생의 <양화진 선교사 열전>에 따르면, 헐버트 선교사는 1863년 1월 26일 미국 버몬트 주에서 마들베리대 총장을 지낸 아버지 켈빈 헐버트와 다트머스대 창립자 후



부모를 잃은 유진 초이(이병헌)가 아버지와 같았던 요셉 선교사의 죽음을 목격하고 오열하는 모습.

운동을 돕기 위해 비밀리에 마련해 둔 것이라고 한다. 이는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중 상하이에 독립운동 거점을 마련하고자 하는 고종과 의병들의 극중 활동을 떠올리게 한다.

일련의 사건에 의해 일본은 헐버트 선교사를 한국에서 추방했고, 이후 그는 프랑스와 스위스 등 유럽 각지를 방랑하기도 했다. 프랑스에 있을

때는 위험한 여행길임에도 광복된 대한민국의 모습이 보고 싶어 무리하게 돌아왔다가, 1주일만인 8월 5일 소천한다. 그때 했던 유언이 바로 위에 소개한 묘비명, "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였다. 그는 유언대로 양화진 외국인선교사묘원에 안장됐다.

이대웅 기자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속 요셉 선교사.

2018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선규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학위(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재발행
- 인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116261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류종길 박사, 이사장: 김광수 박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imaster@gmail.com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M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총회 목사고시, 인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TS.EDU / KEB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6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사랑의 세레나데 아름답게 울려 퍼지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17)- 이천 집사와 이구 권사

기자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서 축복을 감사한다. 이런 저런 사연으로 추천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다. 대부분 하나님 주신 스토리들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스토리만으로는 큰 감동이 없다. 하나님의 스토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의 스토리들이 함께 엮어질 때에 감동을 품은 아름다운 스토리가 완성된다.

이천 집사(기쁜우리교회, 감경진 목사 담임)와 이구 권사가 사무실을 찾아 왔다. 찾아가서 만날 것을 계획했지만 그들이 기어코 찾아왔다. 남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이다. 이천 집사와 이구 권사와 대화하며 나누는 한 시간의 만남에 기자의 마음은 축축히 젖었다. 이토록 아름다운 사랑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이 감사했다. 그들이 엮어가는 영롱한 사랑의 이야기를 여기 풀어 놓는다.

부모님의 신앙의 유산

이천 집사는 아버지의 신앙 유산을 물려받았다. 일본에서 유학하던 중 예수님을 만난 아버지는 온 가족을 전도하셨다. 예수 믿는 가정은 세운 아버지가 젊은 날에 작고하시고 29살에 정상과부가 된 어머니는 기도와 눈물로 자녀들을 양육하셨다. 어머니는 매일 샴바느질을 하시는 고된 생활 속에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새벽제단을 쌓으셨고 샴바느질을 하다가 힘이 들면 잠시 쉬는 시간에도 눈을 감고 기도하셨다.

어린 시절 신앙생활의 추억

그의 기억 속의 어머니는 기도하시는 분이시다.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그는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가 있었다. 그 시절 마을이 교회는 마을 어린이들에게 신앙의 요람이요 문화의 중심지였다. 그는 아직도 그 시절의 추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여름방학 시작부터 학수고대하며 기다린 여름 성경학교는 여름날의 낭만과 추억의 다발이다. 그때 여름성경학교를 인도해 주었던 평양신학교 신학생들을 잊을 수가 없다.

초등학교 친구를 전도했다. 성탄절이나 여름성경학교 같은 중요한 행사 때마다 친구를 교회로 초청했고 고등학교 시절에는 서로 도

움을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목사가 되었다. 은퇴 후 미국에 잠시 들렀던 그 친구 목사가 전도해 주어서 고맙다고 말한 것을 잊을 수가 없다. 그의 전도로 한 목사가 탄생한 것이다. 마음씨 좋고 착실했던 그의 전도 경험이다.

방향의 청년기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했다. 직장인으로 우리는 자유와 풍요에 폭 빠져 살았다. 놀기 좋아하고, 친구 좋아했던 청년에게 주일은 공휴일이었다. 들로 산으로 놀러가기 좋은 휴일이었다. 자연스럽게 교회와 멀어졌다. 신앙생활 잘하는 아내를 만나 결혼하였지만 많은 핑계를 만들어 내 교회에 가지 않았다. 가장 자주 사용한 핑계는 조카들 돌보기였다. 어머니의 기도를 먹고 착하고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청년 이천의 방향기였다.

이민과 신앙의 회복

직장생활의 한계가 보이기 시작했다. 공무원으로 7년 그리고 회사 생활 5년의 끝은 좌절이었다. 미국행을 결심하고 아내를 설득하는데 아내가 완강했다. 이민 생활을 두려워하며 이민을 반대하는 아내를 설득하기 위해 준비한 카드가 신앙생활이었다. '미국이면 신앙생활을 잘 하겠다'며 아내를 설득한 것이다.

마침내 이민 가방을 썼다. 떨리는 손으로 이민 가방을 풀고 처음 한 일이 교회를 찾아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다. 작은 개척 교회를 섬겼다. 이천 집사는 샌디에고에서 일하고 주말에 LA로 올라와 예배를 드렸다. 고단한 이민 생활에 신앙생활이 큰 힘이 되었다. 비슷한 처지, 비슷한 연령의 교우들은 한 주 간을 이기는 힘이 되었다.

수년의 신앙생활은 더 없이 행복했다. 그 후 아픔을 겪으며 방황하다가 나성영락교회에 정착했다. 많은 사랑을 받고 많은 은혜를 받았다. 걱정도 근심도 없고 힘껏 사랑하며 맘껏 사랑 받았던 시절이다. 교회도 가정도 평화로웠다. 돌아보면 그 시절이 이 집사 부부에게 참 행복한 세월이었다.

세상에 이런 일이?

1995년 10월 19일! 이천 집사 부부는 이 날을 잊을 수가 없다. 장보고 돌아오던 아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수술로 병원을 오가며 꿈과 기쁨이 뭉개지는 시간을 보냈다. 아내가 병원에 있다는 전화를 처음 받았을 때, 그는 '약간 다쳤겠지'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응급실, 수술실, 그리고 회복실을 오가는 과정에서도 상황 파악이 안됐다.

그런데 수술실에 나온 의사가 던진 말이 충격적이었다. "네 아내는 끝났다. 너도 네 (살)길을 찾아라!"라고 했다. 아내는 목이 부러지고 신경조직이 끊어져 목 아래 신체를 가눌 수 없는 상태였다. 이 집사 부부는 앞이 캄캄했다. 서로에게 상처가 될 수 있기에 부부는 아무 말도 못했다.

환난 날에 만난 귀한 이웃들!

4개월간의 수술, 회복 그리고 재활을 끝내고 아내가 돌아 왔다. 온 집안을 누비던 아내가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돌아왔다. 기가 막혔다. 막막했다. 그런데 이 어려운 날들에 귀한 도움의 손길들이 찾아 왔다. 약사인 처제는 한국에서 약국 문을 닫고 달려와 손발이 되어 병수발을 해주었고, 이 권사의 친구들도 한국과 독일에서 건너와 최소한 한 달 이상씩 머물며 병수발을 해주었다. 잊을 수 없는 고마운 손길들이다. 환난 날에 만난 귀한 이웃들이다.

잊을 수 없는 귀한 도움의 손길들은 이뿐만 아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1천여명의 성도들이 다녀갔다. 그 많은 기도들, 그 많은 격려들, 그리고 마음을 모아준 도움의 손길들, 그리고 바리바리 음식을 날라준 섬김의 손길들 잊을 수가 없다. 일일이 인사하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함이 늘 죄송하고 아쉽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집사가 조기 은퇴하고 온전히 아내를 돌본 세월이 20년이다. 오직 아내만 돌보고 있다. 취미도 휴식도 휴가도 없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불평이나 원망을 해 본 적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당연한 의무로 받아들이고 아내를 돌본다. 이 권사도 남편 이 집사가 힘들어 보일 때도 있었지만 불평하는 것



이천 집사(좌)와 이구 권사

을 들어 본 적이 없다. 여러 한계 때문에 여행을 좋아하는 아내와 함께 여행을 많이 못하는 것이 이천 집사의 불만이요 아쉬움이다.

이 집사의 고백 속에 아내를 향한 사랑이 절절했다. 사랑이라는 말도, 살가운 표현도 없었지만 모두가 사랑이었다. 이구 권사가 부럽고 이천 집사가 부러웠다. 아내를 바라보는 눈길에도 아내를 돌보는 손길에도 지나간 세월의 고백에도 짙은 사랑의 고백이 담겨 있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한 대로 아내를 믿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멋진 신앙인의 순결한 사랑 고백이다.

가장 힘든 날에 드린 기도

2015년 10월 19일에 이 집사가 수술을 받게 되었다. 아내의 사고 후 20년 만에 자신이 수술을 받게 됐다. 수술을 기다리며 만감이 교차했다. '만일 내가 잘못되면 누가 아내를 돌볼 것인가?', '누가 아내를 지켜 줄 것인가?' 역장이 무너지는 그 순간이 일생에 가장 힘든 날이었다. 그날 병상에 누워 기도했다. "주여! 나를 살려 주소서! 나

를 살려 아내보다 하루라도 더 살게 해 주소서!" 뜨거운 눈물로 기도했다. 이 기도는 오늘까지 반복되고 있다.

향기로운 세레나데를 축복하며

이천 집사 부부를 만난 것은 정녕 축복이었다. 이천 집사의 사랑만큼이나 이구 권사의 여유와 너그러움이 좋았다. 남편의 사랑을 받는 이 권사는 행복해 보였다. 밝은 미소로 화장한 그녀는 예뻐고 남편에게 하는 잔소리도 당당한 아내로 보이게 했다. 이 부부가 나누는 대화에는 짙은 사랑이 묻어 있었다. 감추지 못하는 부부의 사랑에 감동받았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 시간이 감사하고 행복했다.

그들이 풀어가는 아름다운 사랑의 세레나데를 들으며 감정이 격해졌다. 적으며 눈시울이 붉어졌고 기사로 쓰며 또 눈앞이 흐려졌다. 감정이 깨지고 무너지는 소리로 온 세상이 시끄러운데 향기로운 세레나데가 우리 곁에서 고요히 울려 퍼진다. 이 근사한 세레나데가 주님 앞에서 서는 날까지 아름답게 울려 퍼지기를 기도한다.
강태광 편집위원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

이사의 명가(名家) 가주 삼성 통운(주)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 귀국자동차 운송
- 새 물품 구입 시 Sales tax return 혜택
- 무료 창고 보관 2개월 서비스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타주이사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씨애틀, 달라스, 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라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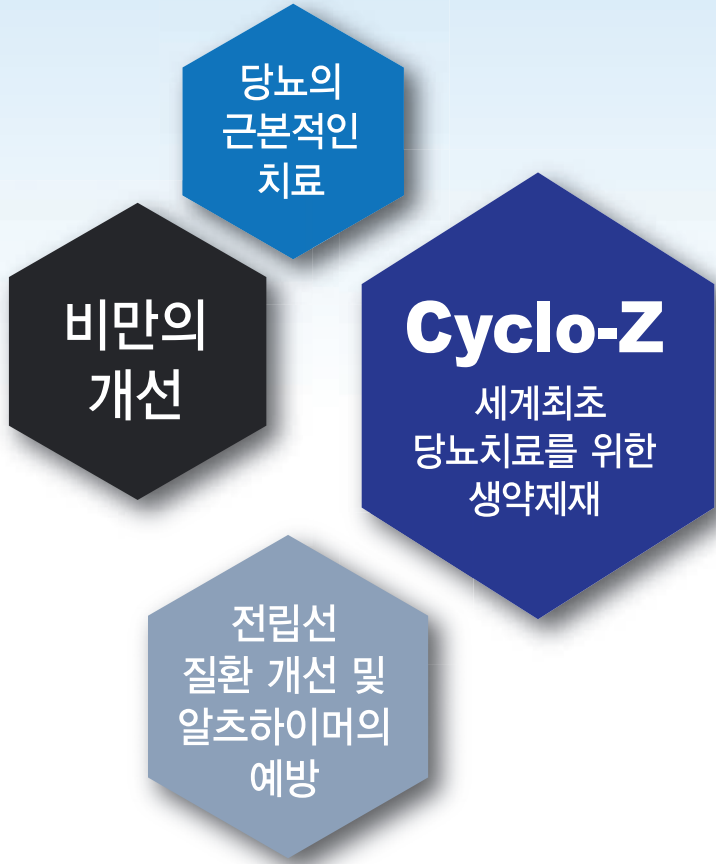
☎ 1-877-580-2424 ☎ (310) 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혈당수치가 내려가면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식후 혈당 억제를 도와 혈당 걱정 없는 인생, 이제 **프로지**로 활짝 웃으세요.



프로지 PRO-Z

혈당수치 조절 및 혈당관리의 시작
나이와 상관 없이 빠르게 좋습니다.

당뇨병 환자 10명 중 3명은 자신이 당뇨병 환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연령대별 당뇨병	30~44세	45~64세	65세 이상
환자 인지율	54.4%	73.2%	81.3%

특히, 30~44세의 젊은 당뇨병 환자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환자가 당뇨병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일본의 전국 약사 1,000명에게 당뇨병 신지식을 가르치고 있는 가사하라 도모코 약사의 저서 "당뇨병, 약을 버리고 아연으로 끝내라" 에서 미네랄의 하나인 '아연'에 당뇨병 치료의 열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당뇨병약으로는 당뇨병이 낫지 않는다. 우리가 먹은 음식은 체내에서 대사를 거쳐 에너지로 변한다. 그 에너지의 재료가 되는 물질을 3대 영양소(탄수화물·지방·단백질)라고 하며, 이 영양소들이 에너지로 바뀌는 작용을 돕는 물질이 비타민과 철, 아연,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이다. 대사를 촉진하는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하면 애써 섭취한 3대 영양소가 에너지로 바뀌지 못하고 체내에 남아돌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혈액 속에서 벌어지면 고혈당·고지혈증이 되고, 지방세포에 축적되면 비만으로 이어져 혈당이 올라가는 사태를 일으킨다. 이것이 당뇨병의 원인 중 하나다.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해서 고혈당이 되었다면 당뇨약을 먹거나 식사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게 당연하다.
- 아연이 인슐린 작용을 돕는다.
당뇨병 환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꾸준히 약을 먹어 혈당을 낮추어도 당뇨병이 완치되지 않는 것이다. 인슐린 주사도 맞으면 맞을수록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해서 마음이 편치 않다. 인슐린은 혈액 중의 포도당을 세포에 들여보내서 높아진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 유일한 호르몬이다. 인슐린이 작용하지 않으면 체내 세포 대부분은 혈액으로부터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끌어들이지 못한다. 생명을 유지하는 중요한 작용을 인슐린이 하는 것이다. 다행인 점은, 인슐린이 적절히 작용하도록 돕는 영양소가 있다는 사실이다. 바로 아연이다. 아연은 뼈의 신진대사를 비롯해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미네랄이다. 간에서 쓸개즙을 만들어 내보내는 통로인 쓸개관에 필요한 효소와 공팔에서 혈압을 조절하는 효소가 기능을 발휘할 때 인슐린이 필요한데, 이러한 인슐린의 작용에 아연이 꼭 필요하다. 아연이 부족하면 혈당 조절 기능이 나빠지고, 합병증의 위험성이 커지며, 빈혈과 식욕부진, 미각장애, 불면증에 걸리거나 활력이 솟지 않는 등 크고 작은 증상에 시달린다.

아연은?
체내에 소량 존재하지만 생체내 여러 효소의 구성성분이 되고, 핵산의 합성이나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관여하는 필수적인 미량 영양소입니다.

당신의 체내 아연(Zn)은 제 기능을 다하고 있나요?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 아연(Zn)은 당뇨와 같은 대사질환 및 특정상황에 노출된 분들에게 체내흡수가 어렵고 흡수가 되더라도 짧은 시간 안에 유실되어 제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프로지의 특별함은 아연(Zn)의 흡수력과 지속력
송문기 박사의 세계적 특허 Cyclo-z 관련 기술이 적용되어 귀하의 체내 아연(Zn) 흡수력과 지속력이 혁신적으로 증가됩니다. 이제 활발한 아연대사(Zinc Metabolism)가 가져다 주는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상실험이 입증하는 프로지의 효능!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 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아시나요?
당뇨 치료, 당뇨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첫걸음

당화혈색소(HbA1c) 1% 줄이기에서 시작됩니다
혈당수치를 조절한다고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화혈색소를 **1%만** 줄여도 → **43% (하지절단) 37% (미세혈관합병증) 등이 줄어듭니다**

당화혈색소(HbA1c) 조절목표는 **6.5%**
당화혈색소 수치는 당뇨 합병증 발생을 반영하는 가장 좋은 지표입니다. 당화혈색소를 정상으로 유지하도록 혈당을 철저히 조절하면 할수록 합병증 발생은 줄어듭니다.

- 43% 하지절단 또는 말초혈관 질환
- 37% 미세혈관 합병증
- 21% 당뇨병 관련사망
- 14% 심장마비
- 12% 뇌졸중

당화혈색소 수치개선은 일시적 혈당조절이 아닌 신체기능의 회복에서 수치가 나타납니다.

송문기 박사, 그는 누구인가?

- * 국가대표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
- * 40년간 당뇨병, 비만 그리고 난치병 연구
- * UCLA학대 생화학 분야 연구교수
- * 미 연방재향군인병원 개발센터 수석 연구원등

송문기 박사의 Cyclo-Z
인슐린감도개선을 통한 당뇨치료제 신약후보물질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미국 정부기관(V.A. Hospital)에서 투자지원, FDA승인 및 임상 2a를 성공적으로 진행중에 있으며 신치료제 상용화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송문기 박사는 이러한 업적과 인류사회에 미치는 공로를 인정받아 세계 3대 인명사전중 하나인 Marquis Who's Who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1병 \$69+Tax
3병 \$180+Tax
6병 \$350+Tax**

핵심은 아연의 흡수
(CHP 특허물질 아연의 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